

##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은 이차전지 기업의 최적의 플랫폼"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문해 '전북·서해안·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곳

이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홍보관에 둘러 협약식 참여기업인 LS의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LS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가 담긴 병을 들어 살펴보는 전구체가 양극

재로 되는 과정과 한국의 제조기술력에 대해 LS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이어서 대통령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생산기업인 엔켐 홍보부스를 방문해 리튬이온의 국내와 위해 오늘 생산시설을 착공한 엔켐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으로 전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면서, "이번 LS그룹의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제가 전라북도를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려 왔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새만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도로 1단계와 2단계가 지난 1월과 7월에 준공됐다"며,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착낸 말 여타를 통

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 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간 투자결정액인 1조원의 6배가 넘는 규모"이고, "지난 9년 동안 성과인 1조 5천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면서 "대선 때 약속대로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며 "그간 정부의 진복에 대한 지원성과를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말했다.

오늘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도현 LS 대표, 최수안 엘엔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는 물론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지역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투자협약식을 축하했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청년 만년 김동연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기 참여자 300여 명 참여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2기에 참여하는 청년 300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2기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처음 도전할 때 느낄 두려움과 걱정을 덜고 넓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기 바란다"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사회 구조와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도전이 쌓이면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정의한 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명사다. 동사는 뭔가 하고 싶은(To Do) 것"이라며 "여러분에게는 두 두(To Do)를 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투비(To Be)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 600명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시도·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하는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12주간의 '파트(PATR) 2 도전과 변화' 과정을 진행한다.

갭이어 1기는 지난 7월 오리엔테이션과 3주간의 '파트(PART) 1 탐색과 발견' 과정을 마치고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기 청년들의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디자인, 교육, 영화·드라마,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순이며 그 밖에도 음식, 음악, 환경·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갭이어 2기'로 참여한 300여 명의 청년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 프로젝트 계획과 기대감 등을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카드섹션을 들고 청년들이 시작하는 꿈을 향한 도전에 응원과 격려로 응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청년정책사업으로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3대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청년 사다리'는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은 미취업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어학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활동 총력

폭염대비 T/F팀 운영강화로 축산피해 선제적 대응



경북도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가축 폭염관리 T/F팀' 3개반 10명으로 하는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폭염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시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안개분무와 송풍팬 등을 활용한 축사 온도 낮추기 시지붕단열 보강 △신선한 물 공급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비타민, 미네랄 등 보충 급여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점검, 각종 노후화된 전기기구 즉시 교체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사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시군에 전파했다.

도는 가축재해보험료 75억 원, 안개분무시설 등 20억 원, 비상발전기 12억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7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82억 원을 지원해 가축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SMS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21천호 발송/회)에 직접적인 폭염 피해 예방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조기에 가입(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토록 당부했다.

한편,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3일 폭염대비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영주시 우림양계농장(산란계 20만수 사육)을 방문해 쿨링패드, 음수냉각기 등 동여부 등 축산 현장의 폭염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은 매년 가축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재해로 축산농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와 음수 급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력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경북도에서도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온·습도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오석규 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고,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동결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GRDP(지역내 총생산)가 낮은 경기북부 도민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고 있어 수도권전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다"라며 "1호선(경원선) 증회·증차(배차간격 단축), 급행열차 강화, 연착·지연 최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안 관련, '의정부경전철' 예를 들며, '기본운임(1,250원) + '별도운임(300원)'으로 의정부시민들에게는 도시철도 운임 중 가장 비싼 1,550원을 지불하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별도운임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운영비 적자 폭을 메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운임의 인하를 통해 동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의 재정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보다는 유료 탑승자의 무료 탑승 시 페널티 부과 관리 철저 및 신규 이용자 창출을 위한 '1일 이용권(1 Day Pass)', '주말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탑승률을 높이고, 의정부 관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수도권전철(도시철도 포함)의 기본운임을 1250원→140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홍원길 의원, 경기도 북서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8월 3일(목) 경기도 북서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고촌상가변영회 오원균 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은 코로나 종료선언 이후에도 골목상권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내용적·규모적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맞춤형 사업 대한 필요성과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상원 김경호 상임이사는 어려움에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원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31개 시군에 130만여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타 부서의 사업들과 연계를 통한 상권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연합조직을 통한 정책제안과 자발적인 해결 모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당사자인 골목상권 상인들의 제안과 경상원 그리고 행정의 지원사업과 정책들이 결합하여 효과를 만들기 위한 자리가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골목상권의 침체는 단지 상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과 규제 개혁 및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하였다.

김범상/기자

# 경북도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휴일 반납한채 호우 피해 복구에 구슬땀

## 배한철 의장,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일(일), 사무처 간부공무원 전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 순흥면 지역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김종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35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에서 침수 주택의 토사 제거, 주변 환경 정리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탤

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배한철 의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휴일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육정미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지역 교원단체 참석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개선방안 논의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지난 3일(목), 오후 시의회에서 지역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육 의원은 전교조직원노동조

합 대구지부(이하 전교조 대구지부) 김도형 지부장 외 4명,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외 4명 등 교원단체 관계자 및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는 공동적으로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교원책임보험의 지원범위 확대, ▲교실 내 녹음전화기 설치, ▲교육활동방해 학생 분리조치 규정 보완 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통한 민원의 효율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교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한 이재화 의원(서구2)도 교사로 퇴직한 가족을 예로 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육정미 의원은 "교권 침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향후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정비하고,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해 교육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장"현장 방문

## 부산오페라하우스 파사드 건립 공법 검증을 위해 실물모형 확인하고 추진상황 점검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8월 4일 상임위 소관 주요 사업 현장방문 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장"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파사드 건립의 공법 검증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실물모형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는 2018년에 착공하여 추진되고는 있으나, 파사드 건립 공법에 대하여 설계사와 시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파사드 공법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공법별 비정형 파사드 BIM(건축 정보 모델) 실시체계 및 이에 대한 각종 시험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검증용 거처 11월까지 최종 공법

을 확정하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안재권 위원장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파사드 공법 적용 문제로 2026년까지 사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번 파사드 공법 선정을 하루 속히 완료함으로써 사업 정상화에 매진하여 더 이상 건립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수시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부산시 주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 '신정희 영덕군의회의원' 마약범죄 예방 'NO EXIT' 캠페인 동참

신정희 영덕군의회 의원이 지난 3일,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신정희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

조하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약예방교육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덕군의회도 군민들과 소통하며 마약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강필여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정희 의원은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이영철 영덕군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김서아 영덕군 음식연구회장을 지목했다.

장문화/기자



# 전남도의회, 몽골지방의회와 첫 우호교류협약 체결

## 돈드고비 의회 초청으로 전라남도 선진 농업기술 전수 및 농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 협의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25일, 몽골 돈드고비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농업 기술 협력과 상호 교류 등을 주된 골자로 하는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한 몽골 돈드고비의회 에르덴 의장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군 부의장과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이재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양 의회 간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전라남도과 돈드고비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확대 및 농업분야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 에르덴 의장은 몽골 주민의 계절근로자 입국 확대를 통해 농번기에 전남 농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돈드고비 지역의 우수 학생을 전남도립대 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전남도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군 부의장은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에 몽골 식품기업 바이어 초청을 통해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농업기술원

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돈드고비에 전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군 부의장은 "돈드고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양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상생의 기회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몽골 내 한류 확대에 따라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까지 교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에르덴 의장은 "양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로가 발전을 도모하고 번치 않는 우정을 쌓아 나갔으면 한다"면서 양 의회 간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관계자는 "10월에 개최되는 제375회 임시회 때 몽골 돈드고비의회 에르덴 의장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연설과 국제농업박람회 및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몽골 내 전라남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사노여천(事老如天)', 노인 공경과 섬김, 애국심 고취 간담회 개최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서울시 재향군인회장과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의원회관 3층 정책위원회실에서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공경과 섬김 및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용호 의원은 최근 노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노여천(事老如天)'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노인들의 돌봄과 섬김을 하늘처럼 소중히 여기고 치매 없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국민연조(연금과 체조)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이번 간담회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에 공감하고 걱정이 앞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 임세규 사무처장 및 서울시 재향군인회 이병무 회장, 정현조 부회장(前 월남참전자의 서울시지회장), 김용민 조직부장 등에게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고, 늙지 않는 사람도 없으므로 노인을 폄하하는 것은 곧 자신의 부모를 폄하하는 것으로 노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존경받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은 "최근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했

는데 어려운 시기에 김용호 정책위원장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의회가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서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운동시설 중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전용 파크골프장을 강남구와 중랑구에 이어 용산가족공원 내에도 적극적으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100세까지 치매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치매예방 국민연조운동 캠페인 서울시추진위원장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치매예방 국민연조 운동 캠페인'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함께 지난 7월 25일부터 용산가족공원 및 강북술밭공원과 수유일공원에서 매주 화-

요일, 아침 8시부터 1시간씩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노인 약 170만 명을 대표하는 고광선 회장과 재대군인 약 80만 명을 대표하는 이병무 회장으로부터 노인공경과 섬김 및 애국심이 고취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의회 최중현의원, 장기요양직·간접 종사자 처우개선 현안정담회 개최

“장기 요양기관 직·간접종사자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간의 적극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최중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개선과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업무의 과중, 돌봄 체계 공백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간접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장기요양 분야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신승호 사무국장, 부천시 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김재섭 대표회장, 수원시장기요양시설협회 김규화 회장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요양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그 밖의 요양 시설의 애로 사항 등 장기요양 직·간접종사자 처우 개선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최중현 의원은 “해외의 선진 사례, 성공적인 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 중에서 유용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있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부재 내지는 매칭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에서 문제해결을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중현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여하 하나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과도한 규제에 의해 어렵다”며 “요양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규제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지역 간의 재정 편차, 행정규제 등으로 요양보호대상자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



요양 보호 비용 부담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중현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관련 조례 제·개정, 건의안 준비 등을 언급하고, 향후 적극적 정책 반영 노력을 약속했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 전라북도에 구조대원, 얼음생수 8만병 등 긴급 지원키로

## 경기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열리는 전북 지원 결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에서 온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일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라북도에 물품과 인력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차로 오늘(4일) 구조대원 12명, 구급요원 15명, 구급차 5대, 재난회복지원버스(25인용) 1대를 잼버리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2차로 6일 얼음생수 8만병을 전북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통화한 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2023년 1월 17일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오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손님들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3차 정담회 개최

## 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 등과 함께 시범운영사업을 위한 구체화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7월 21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위한 정담회는 2023년

1월 13일 파주교육지원청 대강당, 6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도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황윤구 사무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김영순 교육과장, 파주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 8인이 모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의원은 “현재 파주시 거주지역과 먼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등·하교 시 통학 시간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순환버스 운영형태에 대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톡버스」의 운영방식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고, “신설노선을 개통하여 평시와 통학시간 배차간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사업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시범운영 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파주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파주시 타노선과의 중복운영 여부와 학생 통학과 관련된 노선도 및 운송원가 산정, 한정면허 등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 분산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이므로 시범운영 사업을 조속히 준비하여 2학기에는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 신규 공무원 만찬 김동연 “새로운 바람 불러일으켜 달라”

##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47명 축하 행사 개최

경기도가 2일 도청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식 임용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신규 임용자를 만나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들,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깎으면 좋겠다”며 “여러분들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 힘든 경정을 뚫고 공직 생활에 임문했을 텐데, 기대나 의욕과 함께 걱정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우려를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및 전문경력관 1명으로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가족과 친구, 선배공무원까지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청사 안내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시청, 임용장 수여식,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 낭독, 도지사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참석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면서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했다. 도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구성된 ‘031 꾸러미’를 제공해 신규공직자들이 초기에 적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신규 공무원으로부터 ‘누리소통망(SNS) 잘하는 비법’, ‘도지사의 비전’ 등의 질문을 받은 김동연 지사는 “(누리소통망 비법은) 상대편 입장,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도지사의 비전으로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경기도가 잘해서 다른 시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김범상/기자



# 2023 경기도 문화사계 “여름” 행사, 오는 8월 11일부터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

##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이은 경기도 문화사계 “여름” 개최

경기도청 구청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를 활용한 경기도 대표 문화브랜드 ‘문화사계 “여름”’이 오는 8월 11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경기도청 구청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문화사계 “여름”은 지난 해 광고신청사로 이전한 경기도청 옛 부지인 ‘구청사’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 대상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된 문화행사로, 지난 봄 개최된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이은 여름 행사이다. 이번 여름 행사는 ‘let's go picnic’을 주제로 어린이 물놀이장, 경기도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과 K-pop 청소년 랜덤 플레이댄스, 인디스탕스 2023 본선경연 등 피크닉에 걸맞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져 있다.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도예가와 함께하는 물레체험, 코일링 빗기체험이 진행되는 한국도자재단의 도자체험존 ▲경기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스포츠 체험 및 강습(8월 19, 20일만 운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이동안전체험 버스 및 생활안전 교육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임양 문화 캠페인존(실내)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와 함께하는 사진촬영, 여름 나기 활동 체험, 굿즈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도정 홍보존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는 8월 12일 토요일은 사전 모집된 경기도 청소년들이 펼치는

‘K-POP 랜덤 플레이댄스’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곧이어 6시에는 ‘밤하늘의 별을(2020)’을 통해 맑고 깨끗한 음색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경서’가 출연, 경기도청 구청사의 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오는 8월 19일, 20일은 문화사계 “여름” 행사장 특별무대에서 총상금 2,000만 원을 두고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11팀의 ‘인디스탕스 2023’ 본선경연이 개최된다. ‘인디스탕스’는 올해 8회를 맞이한 경기도 대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불고기디스코(2020), 터치드(2021) 등 유명 뮤지션을 배출한 바 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여름 날씨가 필요한 경기도민을 위한 피크닉 행사가 준비한 만큼, 시원한 야외 그늘막과 어린이물놀이장, 문화체험 부스, 경기도(청년)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구청사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여름철 온열질환을 대비하여 실내 온도 조절, 대형 그늘막 설치, 선풍기와 얼음물 배치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더욱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이번 경기도 문화사계 “여름”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참여자 안전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10시부터 13시, 14시부터 15시 2회차,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살수차쉼터 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 총력

## 고령 어르신에 쿨매트·취약 계층에 쿨토시 등 지원 나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더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부서 4개 반으로 운영했던 폭염대응 TF팀을 11개부서 5개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로변 열기를 식히고 과열로 인한 노면 변형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살수차 4대를 동원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심 곳곳 151km 구간에 물을 뿌리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 곳곳의 횡단보도와 교통섬에는 그늘막 117개를 추가 설치해 총 994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등 지정된 실내 무더위 쉼터 75곳을 개방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양산 3000개,

부채 6000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고령 어르신 1640명에게는 쿨매트를 지원하고,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쿨토시, 쿨스카프를 각각 1410개 배부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건강보건 전문인력 25명, 노인돌보미 261명 등 재난도우미가 건강 취약 계층, 홀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대상에게 안부 전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율방재단 723명은 농촌지역 및 야외 건설현장 예찰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폭염경보에 따른 대비태세 점검

화성시가 3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4일 긴급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폭염 대비에 나섰다.

임종철 화성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폭염대비 중점관리대상과 각 부서 및 읍·면·동별 추진·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폭염특보(주의보·경보)시에는 폭염대응 TF팀을 운영하고 폭염경보 3일 이상 지속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폭염대응 TF팀 운영에는 노인보호 대책반과, 건강관리지원반, 의료체계반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수·축산업 대책반과 근로자대책반도 편성해 각 분야별 폭염피해 모니터링과 공공근로자의 폭염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폭염상황에 따라 경계(1단계), 심각(2단계), 매우심각(3단계)의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대응을 통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경

로당을 중심으로 총 782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7개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그늘막 설치 및 휴식시간 준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임종철 부시장은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지속적인 예찰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내 무더위 쉼터 이상유무와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 신상진 시장, '성남 중소기업 미국시장 수출길 개척 위한 광폭 행보'

## 미국 풀러턴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참가기업과 화상회의 직접 주재



신상진 성남시장이 4일 미국 풀러턴시의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전시 기업 대표 및 풀러턴시와 화상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참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성남비즈니스센터(K-SBC)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미국 시장 개척과 판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화상회의에서는 '미국 물류와 유통의 이해를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

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지원과 미국지역 마케팅을 위한 협의를 했다. 또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교두보로 하여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화상회의는 개소식 이후, 한 달여간의 운영을 토대로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모인 것"이라며 "성남시와 풀러턴시,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 정 풀러턴시장은 "성남비즈니스센터(K-SBC)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풀러턴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진 풀러턴시 경제과장은 "개소식 후, 오렌지카운티 상공회의소와 세계한상대화본부 등 지역경제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성남비즈니스센터

(K-SBC)가 풀러턴 지역 내 경제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하여 프레드 정 풀러턴시장, 성남산업진흥원의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과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제니퍼 김 총괄매니저, 참가기업 17개 대표가 참여했다.

지난 6월 미국 LA 오렌지카운티의 풀러턴시에 문을 연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4차산업 및 지식기반 제조기업 22개사의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상담 등의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운영사의 제니퍼 김 총괄매니저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미국 진출 준비사항 및 미국 물류와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방

안에 대해 특강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기업인 아마로스 김선아 대표는 "미국 시장은 보수적인 시장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세계한상대회 등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니록스의 김정호 대표는 "지원기업 간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을 요청"했고, 리얼디자인테크 이종성 대표는 "전시관 방문객들을 위한 제품별 정보를 담은 QR코드 활용 과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화상회의가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참가기업들에 현지 물류 시설과 유통시장의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길을 개척하는데 맞춤형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고양특례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 4년 연속 선정 쾌거...특별교부세 5천만원 확보

고양특례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하는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2020년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및 우수 단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5천만원도 확보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공공부문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살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간부회의를 열어 각 부서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분야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였다. 그 결과 평가 종료일인 6월 30일까지 행안부가 제시한 목표액보다 606억 원을 초과 집행해 목표액 대비 107.6%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은 고양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선제적 예산집행을

실시해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안양문화예술재단,

## '2023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 공모

### 평촌아트홀 분수대에 조형 작품 설치 예정...작가팀 8월 28일까지 공모 안양 연고 예술인 중심 5명, 팀 신청 가능...인건비, 재료비 등 총 9천만원 지원

안양문화예술재단은 평촌아트홀 계단 옆 분수대에 설치할 미술작품 조성을 위한 '2023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팀을 이달 28일까지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안양에 연고를 둔 예술인을 중심으로 행정인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을 팀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선정된 팀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운영비 항목으로 최대 9천만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평촌아트홀 2층 공영장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분수대에 설치할 조형 작품 제작이다. 안양시의 개성을 담으면서 주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

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옥 대표이사는 "평촌아트홀이 그 자체로 다채로운 예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tarkayac@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및 대면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1팀을 선발하며, 9월 4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31-687-0918 신우용/기자



# 안산시, 사회적기업 청년 아카데미 운영... "청년 중심 신규 모델 발굴"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청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청년 아카데미' 수강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관내 단체 및 동아리, 모임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내달 16일부터 11월3일까지 신청 시 원하는 장소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하며,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전환을 희망하는 단체는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소재 직장·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단체, 동아리, 모임(10인 이상) 등으로 선착순 10팀을 모집한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윤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일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중심 사회적기업의 신규 모델 발굴과 예비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이끌어 사회적기업 인증을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용인특례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마쳤다

#### 90억 규모 예산투입...2025년까지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원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7월 31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21대 발전 전략 중 '여가와 머무는 관광육성'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다. 국비 45억원과 시비 45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용인특례시가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가 이뤄졌다.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1차년도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9월 용인특례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상정한다. 의회를 통과하면 세부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중에는 '용인특례시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을 선포하고, 2025년에는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전통과 역사, 문화예술이 한 곳에 모인 관광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한다.

시는 다양한 지역 내 관광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방문객 이동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원이다. 기흥구 상갈동에 위치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중심으로 G-뮤지엄파크 일대를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인터랙티브 버스킹을 관람할 수 있는 '아트로드'(Art Road)로 조성한다.

시는 스마트관광 사업이 정착되면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관광콘텐츠와 연관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도 관광산업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관광 조성사업으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지의 쉼림 현상을 해소하고 600년 이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게 됐다"며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9년 '스마트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를 바탕으로 스마트관광분야에 150억원을 투입할 경우, 885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2단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수원시가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의 2단계 시범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과 단지 내 탄소배출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영통신나무실동보아파트(836세대), 권선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363세대), 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800세대) 등 3개 단지 1999세대에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의 1단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박재현 아주대 탄소제로에너지센터 박사, 1단계 시범운영 참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2단계 시범운영 참여 예정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사업 미참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단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또 자발적 주민조직 구성안과 아파트 주민기후 홍보 대사 모집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8월 중 2단계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2단계에는 공동주택 15개소 2만 1000여 세대와 단독주택 30가구가 참여한다.

기존 안드로이드용 앱만 지원했던 1단계 사업에 비해 2단계에서는 아이폰용 앱을 개발해 지원하며, 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황인국 제2부시장은 "수원시는 전체 건물 중 60%에 이르는 공동주택 세대에서 참여 예정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사업 미참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린 자연과 이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 '살수차부터 냉방비 지원까지' 시흥시, 폭염 대응 '총력전'

시흥시가 폭염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현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

시는 우선 폭염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9개 부서 20개 동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특별팀을 즉시 가동하고 시 전역에 살수차 9대를 운영한다. 현재 시흥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시는 올해 초부터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왔다. 올해만 3억 9,0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6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현재 시 전역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401개소에 달한다.

무더위쉼터는 353개소 운영 중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하우스 등 노인여가시설과 사회복지관, 도서관, 체육관과 마을공유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 시는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15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양산대여소도 5개소 운영 중이다.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에서는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동근로자와 야외근로자, 취약계층의 안전도 더 면밀히 챙긴다. 시는 취약계층에 쿨매트 1,200개를 지원했다. 논밭 작업자들에게는 냉방물품 300개를 지급했고, 수시로 재난 문자를 통해 폭염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신천역 4번 출구에 시가 조성한 이동노동자(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안마의자와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고,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해 무료 법률 및 노무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연세찬 시흥시 부시장은 3일 오후 거모5동 경로당과 물왕1동 경로당 무더위쉼터에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쉼터 환경과 냉방기기 등을 전반적으로 살



피고 개선 사항은 없는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 부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에 신

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총출동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 광명시, 가학산 근린공원 수목원 조성 속도 낸다

### 광명동굴 동측 인접 지역에 2만 3천825㎡ 규모 수목원 조성

광명시가 광명동굴 동측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등 가학산 근린공원 휴양 명소화를 본격화한다.

광명시는 4일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가학산 근린공원 부지 동쪽 소하동 1136-3번지 일대 2만 3천825㎡를 수목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광명동굴 동측 광장에서 이어지는 수목원은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지 지형을 살리고 광명동굴과 연계한 순환형 동선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시 온실을 비롯해 계류원, 힐링숲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 콘텐츠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매입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25년 내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용민/기자



## 부천아트센터 2023년 하반기 라인업 공개, "부천아트센터로 '클랑스' 떠나자!"

### 만석테스트 성료, 클래식 특화 부천아트센터 8월 말 하반기 시작

세계적 거장들이 극찬한 부천아트센터(대표이사 태승진)가 2023년 하반기 라인업을 공개했다. 만석 테스트 성료로 건축음향적 측면이 증명된 홀인 만큼 기획 공연을 폭넓게 선보이며 '클랑스(클래식과 바라스의 결합)'를 선보인다.

◆ 프라이م 클래식 시리즈 및 송년기획 공연...한국, 영국, 독일 등 대표 연주자 내한

부천아트센터의 첫 프라이م 클래식 시리즈는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9. 20)'이다. 정통 독일 사운드를 표방하는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는 5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현재 KBS 교향악단 음악감독을 겸임 중인 핀란드 지휘자 피에타리 잉키넨이 포디움에 오르며 세계적인 한국의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협연한다.

◆ 살롱 콘서트 시리즈 및 영 프론티어-원더우먼 시리즈...한국 클래식의 현재 확인

마이크로 오페라-인디 음악-가족연회극 등 다채로운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은 클래식 토크 콘서트와 리사이틀형 콘서트로 채워진다. BAC 살롱 콘서트 시리즈는 책을 소개하는 북투버로 많은 팬층을 보유한 '김겨울'이 진행자로 나선다. '김겨울의 요즘, 클래식'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진인장벽이 높은 기존의 클래식 공연을 탈피하고 클래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토크형 콘서트이다. 제네바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우수자 퍼커셔니스타 박혜지(8. 31.)를 시작으로 'JTBC 슈퍼밴드 2' 출연 등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9. 21.), 부천시 문화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준희(10. 26.)와 아홉 차례 국제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11. 30.)가 각각 출연할 예정이다. 11월은 세

계적인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정한 소프라노 박혜상과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우승컵을 거머쥔 테너 손지훈의 듀엣 무대로 장식한다. 지난 해 3월 뉴욕 카네기 홀 데뷔 독주회로 한국 가곡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차세대 프리마돈나 박혜상과 몽세라 카바예 국제 성악 콩쿠르 및 비터티 콩쿠르 우승 등으로 당당히 한국 테너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손지훈의 음색을 'The Voice'(11. 18.)공연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2023년을 마무리 하는 12월은 체코의 보석으로 불리우는 소년향장단 '보니푸에라'(12. 16.)의 무대가 준비 되었다. 베네딕토 교향 16세가 극찬한 '착한 소년들의' 힐링 공연 등 다채로운 송년기획공연을 기획 중에 있다.

◆ BAC 아카데미...알고 보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지식, 알쓸클잡...공연 연계 강연

부천아트센터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되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공연장에서 관객을 찾는다. 일상 속 클래식 음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BAC-ACADEMY: 알쓸클잡(알고 보면 쓸모 있는 클래식 잡학지식)'이다. 알쓸클잡의 첫 시간은 오는 10월 6일 공연 예정인 '런던 필하모닉[지휘]에드워드 가드너, 협연]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런던 필하모닉과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협연곡과 관련해 브람스와 드보르자크의 깊은 우정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11월에는 '마지막 낭만주의자'라 불리는 탄생 150주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에 대해 알아본다. 프라이م 클래식 시리즈 중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와 손열음이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3번과 더불어 그의 주옥같은 곡들이 해설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알쓸클잡의 첫 해설자로는 음악평론가이자 커피 포스터로 알려진 '조희창'이 나선다.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음악을 알고 철

학을 알고 커피와 와인을 아는 사람'이라는 평처럼 음악 속에 묻어낸 문화를 어떻게 풀어낼지 명망가가 기대되는 바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전석 2만원으로 초등학교 이상 수강할 수 있으며 '런던 필하모닉'의 공연 예매자에 한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수강 신청은 9월부터 가능하며 부천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최대 40% 자유 패키지 구성 및 부천시 1973년생 특별 할인 등 할인 혜택 담겨

부천아트센터 하반기 프로그램인 프라이م-살롱 콘서트-영 프론티어 시리즈는 지난달 28일부터 부천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 및 연동판매처(위메프, 티켓링크, 11번지, 예스24)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다. 프라이م 클래식 시리즈는 자율적으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최대 40%까지(1인 2매)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런던 필하모닉'의 공연은 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천시 거주 50세(1973년생) 시민에게는 50%(본인 한정)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부천아트센터 태승진 대표이사는 "부천아트센터는 신진 예술가부터 세계적인 거장까지 고품격 음악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건국음악의 메카, 클래식 특화 공연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경북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활동 총력

## 폭염대비 T/F팀 운영강화로 축산피해 선제적 대응 가축재해보험가입,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등을 통한 피해 최소화

경북도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가축 폭염관리 T/F팀 (2023.6.19.)' 3개반 10명으로 하는 폭염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폭염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참고로 '23. 7. 26. 이후 피해현황은 42호 9,179두수(닭 6호 8,800수, 돼지 36호 379두)이다.

경북도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붕에 물을 뿌려주고, 안개분무와 송풍팬 등을 활용한 축사 온도 낮추기 ▲지붕단열 보강 ▲신선한 물 공급 및 적정 사육밀도 유지 ▲비타민, 미네랄 등 보충 급여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점검, 각종 노후화된 전기기구 즉시 교체 등 여름철 폭염 대비 축사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시군에 전파했다.

도는 가축재해보험료 75억 원, 안개

분무시설 등 20억 원, 비상발전기 12억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7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182억 원을 지원해 가축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SMS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21천호 발송/회)에 직접적인 폭염 피해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조기에 가입(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토록 당부했다.

한편,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3일 폭염대비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영주시 우림양계농장(산란계 20만수 사육)을 방문해 쿨링패드, 음수냉각기 가동여부 등 축산 현장의 폭염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폭염은 매년 가축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재해로 축산농가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적절한 환기와 음수 급여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력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경북도에서도

근본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온.습도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ICT 융복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자연재난 대응 회의 개최

## 김주수 의성군수는, "풍수에 취약 요인 전수조사, 사전 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의성군은 지난 3일 09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연재난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9~19. 호우' 대응 미흡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시설을 파악, 개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관리부서와 읍면 재해담당 팀장과 담당자, 예산팀장, 총무팀장, 인사팀장이 참석하여 집중호우 대응 방향과 취약시설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8월 둘째주까지 취약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풍수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보완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풍수에 취약 요인을 전수조사하고, 사전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경북 거대 경제권' 구축 지시

## 응급 및 소아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당부 군위군 시민의 도시철도-버스 환승 편의 증진 주문 신천 둔치의 재난 경보시스템을 전 구간으로 확대설치 지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행정의 출발은 시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민생 편의 증진에도 최선 다해달라" 당부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4일(금),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인력 확충을 계기로 연구 성과가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 직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대구경북 거대경제권을 구축하고 남북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의료원에는 "응급환자 구급서비스 구축과 소아환자 진료시간 확대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진료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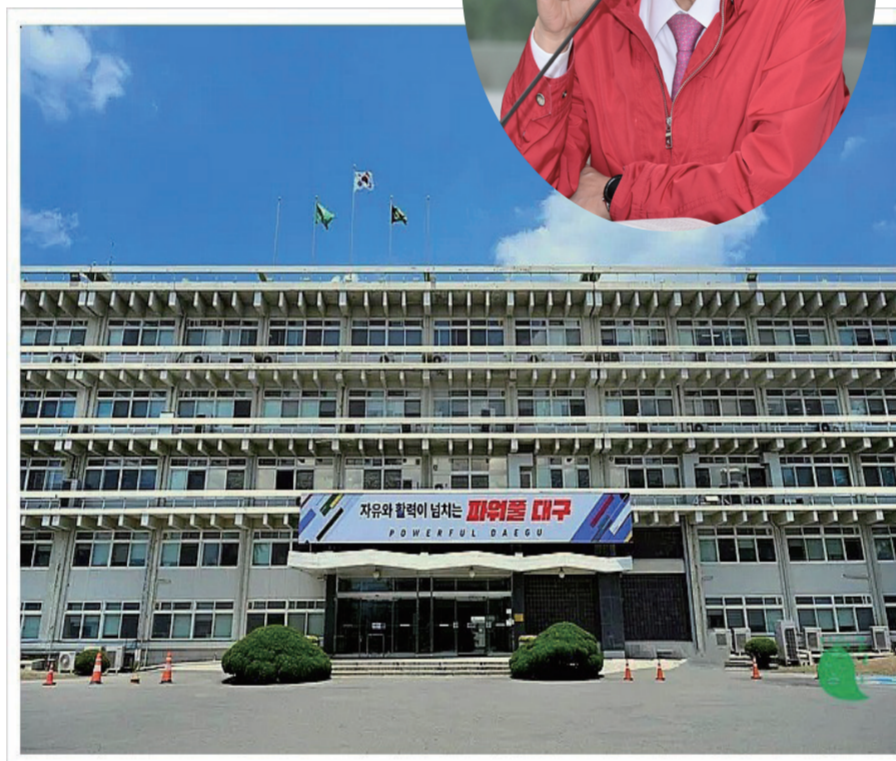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는 "기업 유치에 위한 MOU 체결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관리전략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대구교통공사에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도시철도-버스 환승 이용(3호선 칠곡경대병원역, 팔각역)을 적극 홍보하고 도시철도 대합실 내에 버스환승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BIS(버스도착안내시스템)도 설치해서 군위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는 "신천둔치에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IT 기반 재난 경보시스템을 신천 전 구간으로 확대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재난관리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남북 경제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공공부문의 가용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행정의 출발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함에 있는 만큼 민생 편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고향사랑기부제 3Go + 경품이벤트 참여하세요"

##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0번째, 20번째, 30번째 등 기부자에게 경품 지급 권민기 재정과장,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봉화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봉화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0번째, 20번째 등 매 열 번째 기부자를 당첨자로 자동 선정하는 방식이다.

경품으로는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9월 8일 봉화군 누리집, SNS, 블로그에 게시된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봉화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기 위

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봉화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호우·태풍대비 발빠른 행보,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

## 윤경희 청송군수, "산사태 취약지 등 위험 우려지역의 점검 활동 강화해, 단 한 건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달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임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지는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 247개소이며, 특히 계속된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을 중심으로 산림자원과장 및 산림보호팀장,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하여 모든 취약지역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취약지역 내 시설물 관리 상태, 사면·배수로 정비 및 복구상태, 산림연접 주변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며, 산사태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소(마을회관 등)의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현장 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 향후 호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우려 지역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권기창 시장, 현안사업 국비지원 위한 발빠른 행보 돋보여

## 기재부 찾아 안동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반영 적극 요청 권기창 안동시장, "정부 예산안 확정 순간까지 지역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지속적 협조로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 집중 투입"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해 현안사업이 국비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지난 5월 말,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월부터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 기재부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각 부처 과장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인

▲축산물(모든) 도축 가공시설 지원사업(50.4억 원)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4억 원) ▲군중미생물산업육성지원(40억 원)과, 계속사업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21.2억 원) ▲백신첨단공정기반구축 및 운영(40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173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윤근수/기자



# 전국의 청년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북으로 모여라

## 경북도, 청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개최 팀별 과제수행비 3백만원 지원, 최종 3개 팀 선발 총 시상금 6백만원

경북도는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8일까지 '청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사업은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의 주역으로 활약할 청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주제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자유과제'이며,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생 이상 만 34세 이하 누구나(개인 또는 팀) 가능하다.

8월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개 팀을 선발하고, 오는 10월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3개 팀을 선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원과 HMD 장비 등이 지원되고, 최종 선발팀에게는 상금(총 6백만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북 내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운영사무국(053-819-7013) 또는 경북테크노파크 누리집(www.gbt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청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2023. 8. 4. - 8. 18.  
메타버스, 청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공모목적: 국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아이디어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

공모대상: 국내외 청소년, 청년 누구나(고등학생 이상 만 34세 이하)

공고기간: 2023. 8. 4. (금) - 8. 18. (금)

접수기간: 2023. 8. 14. (월) - 8. 18. (금)

접수방법: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지원내용: 프로젝트 8건  
지원내용: 과제개발비 3백만원 지원 및 개발장비 지원, 상금 총 6백만원  
후속지원: 우수팀 3건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창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접수처: 운영기관: (재) 경북테크노파크 메타버스융합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s://www.gbtp.or.kr>  
문의처: 053-819-7013

# 부산시, '제5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운영

시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 울산경남지회와 함께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육성에 나선다.

시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교육장에서 부산 소재 프랜차이즈 업체와 예비창업자 등 대상, '제5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운영한다.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는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지역 대표 소상공인 성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1년 하반기 1기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지역의 높은 프랜차이즈 교육 수요로 매년 신청자가 늘고 있다.

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전략, 프랜차이즈 사업화 전략,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략, 마케팅 비법(노하우) 등이다. 교육은 단순히 이론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살아있는 생생한 비법(노하우)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전 비법 전수 위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의 강사진을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가, 성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대상은 ▲사업 성장을 원하는 지역 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는 혁신형 소상공인 ▲사업 성장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 ▲프랜차이즈 산업 진출에 관심이 있는 유통 및 제조기업 임직원 등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지난 4월부터 18일까지이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누리집(www.kfabug.or.kr)을 통해 선착순 24명을 모집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051-761-2066)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산 지역 프랜차이즈 산

업역량 강화와 프랜차이즈 전문인력을 양성 하겠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 영주시, 취약계층 6400가구, 냉방비 5만원 긴급 지원

## 정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예비비 3억 2000만원 투입 박남서 영주시장,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경북 영주시는 지속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4일 영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5200여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200여 가구 등 모두 64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판단해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긴급 냉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가구별 현금 지원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8월 중 순차적으로 복지급여 지급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폭우에 이어진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긴급 냉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물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2023학년도 예천학생오케스트라 여름캠프 실시

## 캠프 기간 집중연습으로 오케스트라와 하나 되는 시간 가져



예천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대창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예천학생오케스트라 여름캠프가 진행됐다.

이번 여름 캠프는 방학 동안 집중적인 악기 연습으로 개인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화합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협연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예천학생오케스트라 단원 70명과 지도강사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프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파트별 연습 후 합주하는 일정으로 운영됐고, 마지막 날에는 대창고등학교 소강당에서 연주회를 열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참가한 학생은 "2학기에 참가 예정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과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걱정과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중 연습 캠프를 통해 자신감과 기량을 올릴 수 있어 좋았고, 단원들과 협연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휘를 담당한 대창고등학교 이승선

교사는 "지역 학교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약의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여름캠프를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질서 정연하게 화합하며 연습에 잘 따라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예천학생오케스트라는 60년 전통의 대창고 관악부가 2012년 교육부로부터 학생오케스트라로 선정된 후 예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해 학교 축제 및 정기 연주회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지난 7월에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체험전 개최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바 있다.

윤근수/기자



# 의성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여름 피서지로 인기

## 김주수 의성군수,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오셔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으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름철이 되시길"

의성군 조문국박물관이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이 여름 피서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은 지난달 1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의성군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있으며, 특히 자

이언트 트리, 왕릉발굴터 놀이 벽, 유물 발굴터 분수, 터널 분수 등 조문국의 특색을 반영한 물놀이 시설로 인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물놀이장은 청소년 및 어른(만 13세 이상) 5000원, 어린이(만 2 ~ 12세) 3000원이며, 의성군민은 각 반

값이 적용된다. 운영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단, 매주 월요일은 박물관 휴관일로 인해 휴장하며 8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 주말 영화상영, 아이들이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무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관광지도 각광 받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오셔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름철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사)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 2023년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 기원 결의대회도 함께 오도창 영양군수, "노인지도자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되고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혀

영양군은 (사)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 주관으로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등 노인지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로당을 이끌어가는 대한노인회 핵심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경로당 회계교육 및 "시간관리, 오늘의 삶"이란 주제로 후 포고등학교 교장 황무경 감사님의 인문학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앞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문 낭독 및 결의대회도 함께 가지면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영양군지회도 한마음이 됐다.

안재범 지회장은 "노인회의 핵심지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앞서는 지도자가 되어 줄 것과 그간의 노

력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대한노인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노인지도자여러분의 역량이 강화되고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노인복지의 중간 실행자로서의 리더십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예술인과 함께하는 불목야시장 '소확행'

영양군, 오늘 즐겨요!  
황금빛 소확행 문화 행사 개최해  
지난 4월, 문화활력촉진사업 중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3일 오후, 영양군문화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1천여명의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영양군이 후원해 진행된 '예술인과 함께하는 불목야시장 '소확행', 문화 힐링프로그램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16시부터, 비록 32도를 넘는 뜨거운 폭염속에서도 식선행사로 버스킹 공연이 펼쳐졌고, 드디어 이날 19시, 「예술인과 함께하는 불목야시장 '소확행」 본행사에서는 영양초등학교 벨리 댄스 공연, 지역예술동아리인 별빛보이스 합창단, 비보브라스 금관 5중주, 이기욱 일렉트릭 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이외, 이날의 최고의 무대인 가수 육중완 밴드 공연은 이 곳에 참석한 1000여명의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펼쳐줘, 이곳에 참석한 많은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영양군에 큰

활기를 불어 넣어 주며 성황리에 성료됐다.

한편, 이와 병행해 치러진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으로 차량고지방향제, 아크릴 조명, 가죽 키링, 킬란 화분, 입체나무 퍼즐(동물, 비행기, 팽이) ▲플리마켓(FLEA MARKET)으로 아름다운 광장, 솔향원, 도니디저트, 또비기건어울, 농부의 치킨, 꽃있다 ▲SOUL FOOD TRUCK으로 큐브스테이크, 스테이크 덮밥, 닭꼬치, 소떡소떡, 커피차, 간식차가 준비됐으며,

특히, 작품 전시회는 영양문화원 야외와 1층 실내에 영양예술인들이 직접 출품한 작품이 전시되는 등 다채롭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오감만족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경중 문화원장은 "앞으로 전시회, 작가 초대전, 동아리 활력 사업을 지원하는 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면서 "대다수 지역의

문화축제는 골목축제가 많은 만큼 영양군 문화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문화행사를 치러, 이곳 영양문화원이 영양의 중심이 되는 열린광장, 시장과 연계된 활성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중 문화관광과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불목 야시장이 군민의 문화 정주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행사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3회 더 개최되기에 많은 군민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행사는 영양군, 문화활력촉진사업 중 지난 4월 말경,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최된 것으로 이번과 같은 문화행사는 9월에서 10월에 걸쳐 3회가 추가로 계획돼 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파견 중국 교류 공무원 수해복구 돕기 '동참'

### 중국 자매도시 공무원 2명 영주 수해현장 찾아 복구지원

지난 2일, 경북도청에 파견된 중국 교류 공무원 2명(우후이<후난성>, 마리위안<닝샤회족자치구>)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의 빠른 복구를 위해 영주시 봉현면을 찾아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이들은 경북도의 자매도시인 후난성과 닝샤회족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국과 중국 지역 간 제 분야의 교류 확대/우호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경북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중국 공무원들은 도청 직원들과 함께 폭우로 인해 과수원에 밀려든 바위와 토사 제거,

평탄화 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후난성 과학기술국 소속인 우후이(吴辉) 교류 공무원은 "경북도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마로 상처 입은 지역 주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후난성, 산시성, 허난성, 지린성 등 경북도의 자매우호도시에서는 서한을 통해 경북도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왔다.

윤근수/기자



## 주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23년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올해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군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나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위군은 8월말까지 공모를 통하여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9월 소관부서의 사업검토를 거쳐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사업을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홈페이지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0여명, 여름방학 물놀이 추억만들기 손병복 울진군수,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이날 다양한 물놀이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여한 한 가족은 "폭염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잊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들이 여름방학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울진군은 지난 2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군에 위치한 하이원 워터월드에서 '드림가족 행복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 남해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수행기관 선정

### 우수수행기관 인센티브(포상금) 1,500만원 받게 돼

재단법인 한가람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남해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3년('22년 실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13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복수 및 단일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남해시니어클럽은 복지유형 중 2그룹(공익활동형 + 사회서비스형)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공익 증진과 지역 환경 정비를 위한 공익활동형, 어르신들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실버카페(머무름)를 운영하는 시장형 등 18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해 총 1,092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다. 문원길 관장은 "참여 어르신 및 직원들의 열정과 남해군의 지원이 더해져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남해군에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경북도, 산불감시에 무인자율비행 드론 기술 도입한다

###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향후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보호단속 등 확대 운영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 경주”



경북도는 산불예방과 진화지원을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사람이 일일이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지 않아도 주요지점에 설치된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대기하다가 관제실의 비행지시에 따라 설정된 항로로 자동비행한다. 산불감시 영상촬영과 산불예방 공중방송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료하면 스테이션으로 자동복귀 후 충전하고 대기하므로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자율비행 중 연기나 소각 등의 불시를 감지해 자동으로 관제실로 통보되는 조기경보 체계가 도입돼 사람이 모니터 앞에서 상

시 관찰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투입해 영덕에 산불감시를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보호단속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경북도가 산불감시에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무인 자율비행 드론까지 활용하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 시행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보호 대책 추진 중

대구광역시는 최근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보호 및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생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1,801명)가 취약노인(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안전 및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장비로 대 내 어르신들(9천 명)의 위험상황을 빠르게 감지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거나 활동 감지기를 통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폭염특보 알림 및 음성신고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약노인에게 여름나기 물품 및 건강식품을 지원(1만 명)했으며,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다.

\* 지원물품 : 선풍기, 대자리, 여름 옷·이불, 손선풍기, 여름식품 등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에게 생수, 모자, 토시 등을 지급하고 혹서기 운영지침에 따라 건강확인, 활동시간 조정 및 실내교육 대체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확인도 실시하고 있다.

정외관 대구 보건복지국장은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구·군과 함께 취약노인 보호대책 이행현황

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며, “어르신들께서 폭염특보 발생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 마시기와 휴식

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이렇게 하세요!**

무더운 땀 이렇게 건강을 챙기세요!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가끔씩 낮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냉방기 사용 시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나 염분이 많은 음료나 주류는 자제하세요.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커피 등으로 햇볕을 가리고 옷차림이 볼드득 한거라세요.
- 햇볕이 강할 때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 물을 충분히 마시고, 119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더위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 험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물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천천히 이동하세요.
- 119 응급응급구조대 구급, 구급 등 긴급상황 시 연락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건강상담과 복지지원 지원요청

# 군위군, 예천군 수해피해복구 지원활동 펼쳐

### 박수현 의장,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예천군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시길 기원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지난 4일, 예천군 예천을 일대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피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35도 가까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해지역에서

토사물과 잔재를 제거에 힘썼다.

박수현 의장은 “장마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 지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예천군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창의융합 캠프 “과학과 메타버스의 유쾌한 만남!” 운영

###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4차 혁명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라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2023년 청소년 창의융합 캠프 “과학과 메타버스의 유쾌한 만남!”을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창의융합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를 쉽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창의융합 과학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VR키트도 제

공되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청송군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청소년 210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홀로그램, 애니메이션, AR개발 등)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윤경희 군수는 “지역 청소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4차 산업 관련 분야 체험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도 청소년들이 4차 혁명을 선도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야간관광 특화도시 부산, 「썸머호러나이트」 시티투어 진행

무더위를 날릴 오싹한 공포 체험 버스가 부산에 뜬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4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총 6회에 걸쳐 부산시티투어 야간 특별 프로그램 「썸머호러나이트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썸머호러나이트투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공포 체험을 선보이는 야간관광 특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시티투어버스 코스별로 공포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부산역을 출발해 송도 구름산책로, 하늘전망대, 태종대, 부산항대교,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투어버스에서 주요 관광지의 화려한 야경 감상과 함께 코스별로 공포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저승에서 지옥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한국대표 처녀귀신, 몽달귀신, 장산범 등이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해 귀신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고, 이용요금은 성인 25,000

원, 소인 15,000원이다.

특히, 용두산 빌리지에 있는 귀신의 집 ‘안식병동’과도 연계해 완벽한 공포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야경 코스를 경유하며 공포 체험을 경험한 뒤, 탑승객 전원에게 제공되는 ‘안식병동’ 입장권으로 용두산공원 공포 체험을 추가로 즐길 수 있다.

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 사업자인 ‘용두산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진행된 용두산공원 나이트 팝업과 최근 성공적으로 운영한 수영강 아가씨가 밤놀이터와 함께 여름밤 부산의 야간관광을 책임질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한 부산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예매 방법은 부산시티투어 누리집(www.citytour.or.kr) 또는 부산시티투어로 전화(☎051-464-9898) 문의하면 된다.

송중진/기자

**SUMMER HORROR NIGHT TOUR 일정안내**

회차	일정
1회차	08월 04일
2회차	08월 11일
3회차	08월 18일
4회차	08월 25일
5회차	09월 01일
6회차	09월 08일

**총 6회차 운행**

**이용요금**  
성인 25,000원 / 소인 15,000원

**예약방법**  
부산시티투어 홈페이지(www.citytour.or.kr) 또는 부산시티투어로 문의

**이용요금**  
성인 25,000원 / 소인 15,000원

**TOUR COURSE**  
코스 1: 부산역 -> 송도구름산책로 -> 하늘전망대 -> 태종대 -> 부산항대교  
코스 2: 부산역 -> 송도구름산책로 -> 하늘전망대 -> 태종대 -> 부산항대교 -> 광안리해수욕장

# 울릉군, 섬의 날 관광시설 6개소 무료 개방 운영

울릉군은 지역 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가 행사인 제4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행사 당일 대규모 초청인원과 방문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축제 행사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8월 8일 섬의 날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6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하고 8월 9일에서 8월 11일까지는 요금 50%를 할인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조정이 적용 되는 대상 시설에는 천부해중전망대, 독도전망케이블카, 봉래폭포, 섬목관음도, 태하항목도노레일, 남서일물전망도노레일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천부해중전망대 09:00 ~ 18:00, ▲독도전망케이블카 08:00 ~ 19:00 ▲봉래폭포 08:00 ~ 18:00, ▲그 외 시설은 09:00 ~ 18:00이다.

군은 이번 조정 운영을 통하여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무료개방 당일(8월8일)은 매표시 적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표인원을 안전관리요원으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할인 적용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기본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울릉관광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다시 한 번 철저한 행사준비 당부와 함께 직원들을 독려하며 “이런 좋은 기회로 울릉도를 방문하게 된 내민들을 비롯한 방문객들 모두에게 안보적으로도 중요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매력 넘치는 울릉도를 알리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강제/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폭염 대응 경로당 무더위 쉼터 살피

## 영암읍 망호경로당서 애로사항 청취 낮 시간대 외출 삼가 당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영암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찾아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에 따른 노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영암읍 망호경로당을 방문, 폭염을 이겨내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영암의 어르신과 군민이 폭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폭염이 지속되는 낮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실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모든 경로당 9천212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 2만 5천여 명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안전확보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등 분야별 폭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재난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존 국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냉방비와 함께 추가로 8~9월 두 달간 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박종배/기자



#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재개

## 8월 5일부터 정상운행

남원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폭우로 인한 낙석으로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 구간 도로가 통제됨에 따라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던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가 도로 통제 해제로 8월 5일부터 하루 6회 정상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8월 5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되는 정령치 순환버스는 기존대로 남원역과 광한루원,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을 거쳐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고기리, 정령치 휴게소에 머무는 주천면 방향 경유 노선(1코스) 3회, 남원역에서 출발하여 마천가지로 광한루,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을 거쳐 운봉읍, 인월면 방향을 경유하

고 실상사, 산내면, 반선, 달궁 등 뱀사골 계곡을 지나 정령치 휴게소로 들어가는 노선(2코스) 3회, 총6회 운행된다.

요금은 1천원으로 이용 가능(월요일은 휴무)하며, 첫차는 남원역 출발 오전 7시 20분, 막차는 오후 6시 15분에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 통제로 중단된 운행이 빨리 재개 되기를 원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운행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남여를 휴가기간에 정령치 순환버스로 편하게 지리산을 찾아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남출/기자



# 함평군, 관광객 숙박요금 할인 이벤트 진행

##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참여 관광객 모집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2023년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참여 관광객을 8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23년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외의 지역에 주소소를 둔 관광객이 지정된 함평군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숙박요금을 할인받는 프로그램이다.

숙박료는 1박 기준 요금 ▲10만원 이상 4만원 ▲7만원 이상 3만원 ▲7만원 미만 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1회 최대 10박(연박)까지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 방법은 함평군이 지정한 숙박업

소 중 1개소를 선택해 유선 예약 후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함평군 관광정책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책실 관광정책실장은 “오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모악산 꽃무룻축제, 국향대전을 맞아 이번 이벤트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함평을 방문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함평군청 관광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기자

# ‘귀농·귀촌 임시 보금자리’ 나주시, 빈집재생 1호점 준공... 올해 총 7곳 조성

## 민선 8기 귀농·귀촌 시책 ‘농촌활력 빈집재생’ 왕곡면 마산마을 빈집 리모델링

나주시의 농촌 마을에 오랫동안 흉물스러워 방치된 빈집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시설로 재탄생한다.

새집 단장을 마친 빈집은 입주 모집 절차를 거쳐 5년간 귀농·귀촌인의 임시 보금자리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농촌활력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왕곡면 마산마을(화정리) 빈집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집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방지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체류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귀농인의 집) 제공에 중점을 두고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농촌 마을 인구소멸 문제를 새 마을 조성이 아닌 기존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윤병태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귀농인의 집은 나주시에서 일지리를 얻고 진입하는 무주택 청년(18~45세)에게 임대주택 보증금 전액을 지원 하는 이른바 ‘0원 임대주택’ 사업과 더불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인구

유입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사업 첫 성과인 왕곡면 마산마을 1호점 빈집재생에는 시 자체 예산 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빈집은 주택 53.2㎡, 대지 460㎡ 규모로 방 3곳, 부엌·화장실 각 1곳 등 주택 실내 및 외부 벽면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나주시는 귀농인의 집 1호점에 입주할 예비 귀농·귀촌인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입주 대상은 나주시 이외 지역에서 나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실제로 거주·정착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다.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귀농·귀촌인의 집(마산마을) 입주자 모집’ 안내글에 첨부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나주시농어업회의소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 20만원(공과금 별도)을 해당 마을협의회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비용은 마을 융화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거주 기간은 사용 약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다.

나주시는 올해 귀농인의 집 7곳 조성을 목표로 빈집재생을 희망하는 각 마을협의회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빈집 11곳이 모집됐지만 대다수 미등기 주택이거나 철거 직전의 노후 정도가 극심한 빈집 등으로 3곳이 1차로 선정됐다.

왕곡면 마산마을 1호점에 이어 다도면 방산마을, 세지면 성산마을에서 빈집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빈집재생 사업 추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8월 25일까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농촌활력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해 소유자와 5년간 주택 무상 사용 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이어야 하며

다세대·빌라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후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4000만원까지 주택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농촌 마을 빈집을 귀농·귀촌인 임시 주거시설로 조성해 마을 경관 개선과 활력 넘치는 농촌을 구현해가겠다”며 “빈집재생과 더불어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농 현장실습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순천시, 전남권 최초 반려동물문화센터 개관

## 반려동물친화도시 문화 정착에 앞장서

순천시는 4일, ‘반려동물친화도시 일류순천’을 선언하고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건립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반려유기동물공공건물소)를 개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성홍 청암대학교 총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반려인들이 참여했다.

특별행사로 풍덕초등학교의 너른들합창단의 동물을 주제로 한 동요 합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개막을 열었으며, 유기동물 입양문화에 함께 동참하자는 뜻으로 ‘슬로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순천시 역전길 50에 위치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부지 면적 3천104㎡, 건축면적 2천689㎡의 지상 4층 건물로 지난 2021년 3월 착공하여 2년 2개월간의 공사

를 마치고 지난 5월 준공했다.

주요시설로 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와 반려동물 실내놀이터(대형견 놀이실, 중소형견 놀이실), 체험학습실(기초미용, 간식만들기 등 실습교육), 교육실, 영상교육실, 입양상담실과 시민 휴식 공간을 갖춘 반려친화복합시설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인으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워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뛰놀고 동반입장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아이 부지공간을 확보하여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하는 펫마켓 문화를 정착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할 만한 생태경제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완도군, 금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중

## 175억 투입 해조류 거점 공간 및 특화거리, 수변공원 등 조성

완도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2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재생형)’ 공모에 선정돼 ‘금일읍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75억 원(국비 105, 도비 17.5, 군비 52.5)을 투입해 전국 대비 70% 이상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금일읍에 해조류 6차 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콘테이너를 개발하여 지역 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특화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조류 거점 공간’을 건립하고 전국 유일의 다시마 특화 브랜드를 만들어 금일 다시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해조류 거점 공간’(가칭 해비센터)은 금일읍 화목리에 연면적 2,300㎡ 규모로 조성되며, 해조류 판매 전시장과 해조류 기반 특화센터 및 상가 등이 들어선다.

‘해조류 거점 공간’이 조성되면 다시마 등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로 주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됨을 물론 일자리 창출과 여촌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입 시설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공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일읍 상권 지역에 ‘특화 거리’도 조성한다.

‘특화 거리’는 금일읍사무소 인근 거점 골목 4개소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및 경관을 개선하여 낙후된 상권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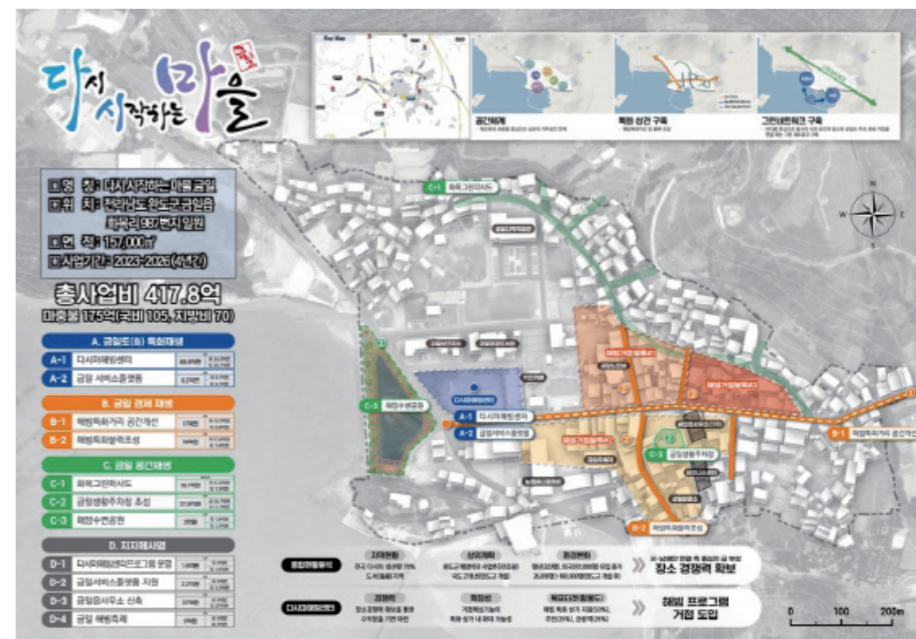
현재 주민협의체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상권이 회복되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9월부터는 집수리 사업과 공원 및 주차장 조성, CCTV 설치 등을 추진해 정주 여건과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화목리 해안가에는 해양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금일읍사무소가 신축되면 지상 2층, 50면 규모의 생활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일읍 화목리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아울러 해양바이오산업과 연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서남해안권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울/기자



# 전북도, 잼버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축운영

## 자원봉사자 무더운 날씨의 구슬땀에도 민간외교관 역할 톡톡

전라북도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잼버리의 원활한 행사 진행과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일부터 12일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잼버리 현장에 배치하고 자원봉사자 지원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효율적인 현장 수습을 위해 전라북도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을 통해 구성했으며, 자원봉사 수요조사·봉사자 모집·적재적소 배치 등 산발적인 자원봉사를 일원화한 대응 체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당초, 자원봉사자들은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전라북도의 문화와 자원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영의 활동의 통역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나, 폭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

생하여 잼버리 영내의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 등 청결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구축되고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실제 4일에는 자원봉사 460여 명이 잼버리 현장에 투입됐으며, 지원단을 통해 자원봉사 인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해수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폭염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임에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활동이 잼버리에 참여한 전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잼버리를 제대로 즐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지원을 잼버리 행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이며, 수요에 따른 전문 자원봉사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 불법 어업 행위 근절 확고한 의지

신안군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뱃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

을 실시할 것이며, 바지선을 이용한 개량안강망 불법조업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구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강력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무기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현재까지 33척의 바지선에 대하여 어구절단 27척, 어구철거 6척을 단속했고, 단속에 저항하는 어업인은 현장에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 진도군, 호주에 1백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 체결

## 호주 (주)마이홈푸드와 협약 체결...진도 꽃게, 곱창김, 흑미, 조미김 등 수출



진도군이 4일 호주 현지에서 마이홈푸드와 진도 농수산물 1백만 달러 임점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호주의 식품 유통업체인 마이홈푸드를 통해 진도수협, 서진도농협, 바다물산, 창해수산, 두성재단 등 5개 업체의 잡곡, 진도 꽃게, 곱창김, 울금누룻지, 젓갈, 흑미, 조미김 등이 수출·판매될 예정이다.

진도군의 이번 협약은 호주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군은 지난 6월 호주 시드니와 호스버로 진도 꽃게, 곱창김, 진도쌀 등 5톤 가량의 진도 농수산물을 첫 수출해 시드니 소재 프리지엄 마켓과 서울마트에서 오는 13일까지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5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행사 전 현지 언론광고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와 행사장 내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기간 중 진도 농수산물의 홍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업체와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호주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우홍섭 진도부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최근 K-culture의 영향으로 한국식품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수한 진도 농수산물을 이용해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보로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의 수출 촉진 활동이 기대된다.

진도군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농심 계열인 미국의 (주)메가마트 애플란타점 등으로 진도 쌀과 김 등을 수출·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 감염병 예방 철저 당부

## 실과장 토론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대폭 증가에 따른 감염병 예방 강조

구례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

휴가철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폭염과 장마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7월 31일 실과장 대상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피해 예방, 2023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교통대책 추진, 구례

군의회 임시회 운영지원 등 현안업무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취약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관내 교육기관 손씻기 교육 도구 대여, 감염병 자가 예방법 교육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고령인구가 많은 구례군은 잠깐의 방심도 위험하고,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화순군, 벼 이삭이 패는 시기 병해충 기본방제 설정 운영

## 벼 기본방제기간 8.8.~17.(10일간), 이삭도열병, 흑명나방, 멸구류 등 중점방제

화순군은 6~7월 장마와 8월 폭염으로 벼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다가오는 벼 이삭패는 시기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 8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을 벼 기본 방제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여 농가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벼 이삭패는 시기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은 이삭도열병, 흑명나방, 멸구류 등이다.

이삭도열병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어 잎 색이 짙고 잎이 늘어진 논 등에서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삭이 패는 시기에 등록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흑명나방은 성충이 많이 보이는 날로부터 10~15일 후 유충 피해 잎이 발견되면 방제하고, 멸구류는 벼대의 아랫부분에서 주로 서식 흡즙하여 피해를 주므로 예찰을 통해 적기 종합방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8월 전남 지역 월평균기온은 평년(25.5~26.5°C)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월 강수량은 평년(192.2~322.0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은 농업인들의 벼 병해충 방제 비용 절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벼 방제비 지원을 대폭 증액 지원했다"며, "고품질 쌀 안전생산을 위하여 이후 기상 상황 및 농가별 벼 생육상황 등 고려하여 벼 이삭패는 시기 병해충 기본 방제를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화순군은 올해 총 8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일반재배지(3,800ha)와 친환경 재배지(800ha)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비를 지원하고 있다.

윤경호/기자



# 장흥군,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농특산물 수출 청신호

## 3개국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관 설치 협의

장흥군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200만 달러 수출협약, 35만 달러 계약체결 성과를 냈다.

장흥군은 1일과 2일, 미국, 남아공, 사우디, 호주, 베트남,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 8개국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내수만으로는 농특산물 판매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해외수출 판로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전라남도(국제협력관실), 전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에서도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여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1:1 맞춤형 기업상담과 참여업체 사업장 방문(8개소) 등이 진행됐다.

환영만찬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는 등 알차게 구성되어 해외바이어, 기업들의 호응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5개국(미국, 사우디, 남아공, 중국, 러시아) 200만 달러 수출업무협약 체결, 6개국 35만 달러 수출계약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러시아, 중국, 남아공 등 3개국에서는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관 설치에 협

의했다.

장흥군은 베트남에 '장흥농특산물 판매센터' 개설과 수출협약에 공로를 세운 마이 쿠엔 트레이딩 대표 '응옌 티 닛 꾸엔'에게 장흥군 명예군민패를 전달했다.

베트남 수출에 가고 역할을 한 이정한 장흥통합의료병원 원장에게는 장흥군수 감사패가 수여됐다.

수출참여 기업 미가원 불우이웃돕기 기탁식(라면 100박스)도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농특산물 판매관 추가설치를 이어가겠다"며, "장흥군 농특산물을 세계에 알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강진군, 여름방학 대학생 공직 체험 수료식 가져

## 강진원 군수, '남이 좋다고 하는 직업보다 내가 좋은 일 선택' 당부

강진군은 지난 2일, 군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50명과 여름방학 공직 체험 수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공직 체험 참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업무를 스케치한 영상과 참여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활동 브이로그, 강진소개 인터뷰 시청에 이어, 강진원 군수와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대화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즉석 질문을 통해, 군수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에 대해 묻고,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또 강진온빛교육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김보균 대표를 강사로 초대해 지역문화 유산으로 병영상인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듣고, '목공 굿즈' 만들기 프로그램도 도전했다.

강진원 군수는 "우리 지역 청년들과 강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하는 동안 행복한 일을 찾는 지혜로운 강진 청년이 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민선 8기부터 기존 대비 5배 늘려,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올해 여름방학에도 50명의 학생들이 공직 체

험에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7월 10일부터 20일간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배치돼 행정 및 현장업무를 체험하는 대학생 공직체험을, 4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

추윤호/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2지구 호텔 운 영에 하얏트의 알릴라(Aiila) 브랜드를 한국 최초로 도입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2지구 개발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운영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하얏트그룹 관계자들이 설계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망상 2지구 현장을 방문했다.

스테판호 하얏트그룹 아시아퍼시픽 총괄사장과 최경수 하얏트그룹 한국사업개발담당은 8월 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를 방문하여 망상 2지구 호텔 명칭인 가칭 "Grand Hyatt Mangsang + Aiila Villas Mangsang"의 운영계획과 설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스테판호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도시와 풍경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하얏트 호텔의 운영 방식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면서, 향후 망상2지구 설계 시에 망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담은 지역 특유의 새로운 콘셉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객에 대한 작은 정성이 담긴

식재료에 대한 발굴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망상2, 3지구 현장을 돌아보면서, 인근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 정상 운영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상호 연계가 관광객 유치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동해시와 강원도를 방문하는 내,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에 매진하여 강원권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호텔로서 동해시와 강원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영선 청장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2, 3지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동해 일출과 전경을 볼 수 있는 2지구가 선도사업이 되어 사계절 관계없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좋은 선례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컬링부터 쇼트트랙까지 한여름에 즐기는 강릉 빙상스포츠 축제

오는 11일~13일까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봄 조성 및 다채로운 행사 개최



컬링대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4회 빙상스포츠 페스티벌은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홍보와 더불어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다양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채워진다.

매일 다른 컨셉의 디제잉과 함께 스키이트를 즐길 수 있는 'DJ 스키이트 나이트'는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색 코스튬 의상 대어 이벤트로 스키이트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옛날의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얼음썰매, 팽이치기 체험을 아이스링크장에서 즐길 수 있으며, 청소년올림픽공원, 버스킹,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공연이 특별무대에서 펼쳐진다.

실외에서는 무더위를 날릴 워터하키, 워터물총배 등 물놀이 체험 및 가상으로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VR체험, 어트랙션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DJ 스키이트 나이트, 놀이기구 등 일부 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이며, 리플릿에 있는 오픈기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빙상 스포츠 스타의 일일 강습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빙상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원 2024 홍보대사이자 대한민국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를 비롯한 박장혁, 이준서 선수가 일일 특별강사로 나선다.

강릉시 관계자는 "전 읍면동이 참가하는 전국 유일의 시민컬링대회와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인 빙상시설을 활용한 이번 빙상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시민 및 피서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모두 선물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회식은 오는 11일 오후 7시 제4회 빙상스포츠 페스티벌과 함께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등원/기자

강릉시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봄여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강릉컬링센터에서 제8회 강릉시장기 시민컬링대회 및 제4회 빙상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빙상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컬링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는 등 시민 및 청소년들의 동참과 결속을 이끌어 내어 빙상도시에 걸맞은 빙상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선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강릉시장기 시민컬링대회는 지난 2015년, 동계올림픽 G-1000일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됐으며 읍면동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뽐내는 시민 한마음 축제이다.

이번 대회에는 21개 읍면동 총 29개팀 180여 명의 선수들이 예선전 조별 풀리그를 거쳐 16강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며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 태백시자원봉사센터, 태백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자원봉사센터와 태백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일,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할인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자활참여자들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뿐만 아니라 태백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기업(스팀세차 차당go, 현미와 누룽지)의 할인가맹점 등록으로 태백시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제품별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성근/기자

김재찬 태백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자원봉사센터와 현재 8월 기준 할인가맹점 제휴를 맺은 사업장은 34개소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한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약정된 할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근/기자



# 원주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 운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교육 참여 가능



원주시보건소는 어르신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우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어르신 맞춤형 ICT 교육'을 추진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강원도 디지털 배움터와 협업으로 진행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에 중점을 둔 이번 교육은 앱 설치, 실행, 삭제와 카카오톡 활용법, 연락처 및 사진 관리법, YouTube 재생 방법 등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실습해보며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도록 설계됐다.

교육은 8월 한 달 동안 총 3회 실시하고, 비용은 무료이다.

오는 8일에는 사제리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제보건진료소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29일과 31일에는 보건소 3층 중회의실에서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김정환/기자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8월 25일까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상담 후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은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보건소는 올해 7월부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에게 '오늘건강'앱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 31건 시정 등 요구

산하기관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지도감독 소홀

수년 간 공모 절차 없이 출연기관에 행사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춘천시의 부적절한 업무 실태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됐고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명을 포함하여 36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상시학습 실적이 중복 입력되어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됐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이 발생하고 이행보증보험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했고,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춘천시 약사축

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개소 조성을 대행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시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 감사위원회는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한 춘천시 산하기관 대상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적절 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 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등원/기자

# '속초시 승격 60주년 기념'8월 기획공연 개최

## 무더운 여름 속초시가 준비한 공연으로 즐거운 여름 나기

속초시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공연을 준비했다.

속초시와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은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한 기획공연으로 '뮤지컬 실타라',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축구연극 패스(PASS)'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첫 번째 공연인 '뮤지컬 실타라'는 8월 11일(금) 19시, 12일(토) 14시 총 2회 공연을 진행하며,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로 2600년 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실타라가 부와 명예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해 온갖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은 과정을 음악과 안무를 더해 종교를 넘어 지친 현대인에게 위로와 전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공연인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8월 18일(금) 19시 30분 1회 공연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길에 나선 경숙이와 비록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경숙이, 아비가 세상에서 제일 싫지만 또 그만큼 아비가 너무나 그리운 경숙이 등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꾸밈없고 소박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마지막 공연으로 8월 25일(금) 19시, 26일(토) 15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축구연극 패스(PASS)'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1946년까지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남한과 북한 청춘들의 축구를 소재로 뜨거운 청춘들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특히 이번 작품은

이등원/기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속초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4개 단체·기관이 협력하여 서울과 부산, 정선에서도 공연한다.

3개 공연 모두 모두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며, '뮤지컬 실타라'와 축구연극 '패스(PASS)'는 인터파크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매할 수 있고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속초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매가능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우수 공연프로그램 유치를 지역에서 자주 접하지 못했던 대형 창작 뮤지컬 및 연극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스며드는 '문화도시 속초'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 충남도, 환황해포럼 준비상황 중간점검

## 제9회 환황해 포럼 행사 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보고·자문 등

충남도는 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9회 환황해 포럼 행사 대행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살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환황해 포럼 자문위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중간 보고, 질의응답 및 자문,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인 포레스컴은 중간 보고를 통해 포럼의 주요 일정과 초청·의전, 홍보, 행사장 구성, 통역, 인력, 안전 관리 등 분야별 세부계획과 준비 상황을 공유했으며, 환황해 포럼 자문위원 등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에서 수렴한 자문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해외 지방정부 초청 및 세션별 토론자 섭외 현황, 영상 제작 상황 등이다. 오는 9월 24~26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대백제전과 연계해 개최할 예정인 올해 환황해 포럼은 '해양문화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를 주제로 △해양관광벨트 △탄소중립 △문화관광 등 3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해양문화관광'을 큰 주제로 선정했으며, 중국·일본·베트남 등 도와 자매결연·우호협력 관계인 해외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황해 포럼은 환황해권의 평화와 번영, 공생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2015년 첫 개최 이후 올해 9회째를 맞는 국제포럼"이라며 "이번 환황해 포럼을 통해 국내외 환황해권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박경귀 시장 "아트밸리 아산, 신정호 상인·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 아산시, 3일 모나밸리서 신정호 아트밸리 상가 간담회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아트밸리 아산' 도시브랜드 작업이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거점 플랫폼인 '신정호 아트밸리' 주변 카페, 식당, 주민 여러분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3일 모나밸리에서 열린 '신정호 아트밸리 상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최근 도시브랜드 평가 순위 급상승,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분야 최우수상, '2023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 도시브랜드 부문 대상 등 성과를 공을 돌렸다.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가 아산시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면서 "지금도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 산업도시인 우리 도시에 '문화예술'이라는 강점까지 더해진다면 '아산시'라는 이름이 갖는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파크 페스티벌 지속 개최 △인근 유휴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국제 비엔날레 등 고품격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대표들에게 △신정호 조망 가능한 테라스 공간 확보 △계절감이 느껴지는 수목 및 꽃 식재로 정원과 이어지는 느낌의 정원거리 조성 △행사 진행 시 장소 및 주차 협조 △상가 화장실 열린화장실로 개방 협조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신정호는 불이면 신정호 철쭉꽃 축제, 여름에는 썸머페스티벌(락페스티벌·별빛음악제·뮤지컬·영웅·갈라콘서트·워터슬라이드IN신정호), 가을에는 재즈페스티벌과 100인 100색전 등 계절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신정호 아트밸리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여러분이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가 하라밸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문화예술거점으로 자리 잡으면 주민 여러분과 상인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한다"면서 "신정호의 전국적인 명소화를 위해 아산시와 신정호 상인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설득했다.

그런데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가 추진 중인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사업의 확정된 계획과 추가 계획을 상인 및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아산시는 신정호 정원의 콘셉트를 '물의 정원'으로 확정하고 환경정원·사계절정원·색갈정원·다랭이정원 등 신정호의 특성화 자연지형을 활용한 8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앞서 2024년 '충남 제1호 지방정원' 등록 신청을 목표로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업비는 총 255억 원(도비 15억 원, 시비 24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신정호 인근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신정호(중로2-6호)를 확장하고, 신정호 수질 복원을 통해 수변 휴양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고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 및 조류 서식지 개선 등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설치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신정호 아트밸리 예코 농(農)

김원호/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 폭염 대처 긴급회의 열고, 총력 대응 지시

## 폭염 대비 시장·군수 긴급회의 개최, 피해 예방에 행정력 집중 당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충북도는 8월 4일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폭염 대비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관련 시군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폭염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11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는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운영중에 있으며, 도내 인명피해로 고령 사망자 1명을 포함하여 온열질환자 78명이 집계됐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전 시군에 폭염에 따른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활용 취약계층 예방 강화, 고령 농업인 폭염취약시간 영농활동 자제, 건설현장 및 호우 복구현장 인력 온열질환 방지 대책 마련 등 무더위에 취약한 소외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기기 및 위생

상태 점검, 취약계층 긴급예산 지원, 폭염 대비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도 및 전 시군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폭염 대응 대책들이 실무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대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영환 도지사는 회의 종료 직후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과 직접 통화하여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경로당 시설 불편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사항을 파악했다. 김 지사는 이 회장과 통화에서 "경로당에 냉방비가 추가 지원이 되는 만큼 도내 경로당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번 폭염을 잘 넘기시길 바란다"며 "더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세종시 여름철 코로나19 증가세, 일상방역 생활화 권고

## 3밀환경 마스크 착용·확진 시 격리 준수·외출 시 손씻기 등 강조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5주 연속 증가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일상방역수칙 생활화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5주간 전국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누적)는 6월 4째주 1만 7,000명에서 지속 증가하면서 7월 넷째주 4만 5000명까지 늘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증가세의 원인으로 예방접종 획득 함체 소실에 따른 재감염, 격리의무 해제로 유증상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진자가 증가세이긴 하나 최근 유행 중인 코로나19 엑스엑스비(XXB) 계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그동안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으로 확진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인플루엔자도 동시 유행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여름 휴가철 특성상 지역 간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만큼 축제장,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의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최정근/기자



#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등 서비스 확대 추진

## 특별교통수단 확충(50대), 바우처택시 활성화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통수단 등 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은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광역범위로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대전시는 이번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96대를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2026년까지 50대를 늘려 법정대수(134대)보다 12대 많은 146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2026년까지 차량 1대당 1.35명까지 매년 5%씩 증원하여 차량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운전원 모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우처택시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운행건수에 따른 성과급, 콜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용자에게는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택시 활성화 등 운영 인프라를 확대하여 현재 24분 정도의 배차 대기시간을 19분 이내로 단축해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특별교통수단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근종 칼럼

안전 외면한 '철근 누락' LH 발주 APT, 건설 카르텔 발본색원을



박근종(작가 칼럼니스트)

현,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전, 소방준감

전,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전,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도록 건축물이 수직 고층화하고 지하 심층화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밤 11시 30분경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과 '철근 빼먹기'가 안단테 아파트처럼 수직 기둥으로 넓은 슬래브를 받쳐주는 '무량판(無梁)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Beam)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를 바로 얹는 건축 방식으로 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시공비, 공사 기간 절감의 장점이 있다. 보가 없어 높이가 높은 차량도 출입을 할 수 있어 2017년 이후 국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다수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전단 보강근)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키거나 빼먹은 '순살 아파트'는 평균 6개 단지 중 1개 단지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순살 아파트'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철근을 설계 단계부터 누락시켰고,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에서 빼먹었다. 공사 과정을 감시해야 할 감리사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공사 중인 경기도의 한 단지는 보강 철근 154개 전부를, 입주를 마친 충북의 한 단지는 123개 중 101개를 빼먹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설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자칫 큰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를 추가 조사하면, 부실 시공된 아파트가 더 드러날 것은 분명하다. 부실 국내 아파트 현장을 보면 우리가 과연 해외 건설 매출 세계 5위가 맞나 싶다.

세계 최고층 빌딩과 세계 최장 교량을

짓는 건설 강국이 실력이 없어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한국의 건설기술 경쟁력은 세계 6~7위를 다투며, 시공 능력에서는 세계 최강이다.

163층의 높이 828m로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를 한국의 삼성물산이 건설했고, 튀르키예 북서부 다르다넬스해협을 가로지르는 길이 4.6km의 세계 최장 현수교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기적의 다리'라 불리는 튀르키예 '차낙칼레1915교(1915 Çanakkale Köprüsü)'를 한국의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건설했다. 문제는 안전과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다만 찾는 '물길 만능'과 이를 위해 적당주의를 용인하는 '부실 문화'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 '부실 커넥션'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는 1995년 6월 29일 건물이 무너져 사망 502명, 부상 937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에도 사용된 공법이다. 설계상으로는 기둥과 슬래브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지판'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판 두께가 얇거나 아예 없어 무리한 구조 변경과 함께 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됐다. 당시에는 지판을 빼먹었다면, 이번에는 철근을 빼먹은 것만 다를 뿐이다. 단가 후려치기와 재하청은 이보다 앞선 1994년 10월 21일 다리가 무너져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성수대교 붕괴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단가를 후려치고 하중에 재하청까지 남발하며 안전을 해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 현장에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아파트 붕괴 참사는 1970년 4월 18일 아파트가 무너지며 사망 33명, 부상 4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1993년 1월 7일 사망 28명, 부상 48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공사장 붕괴 참사(사망 9명, 부상 8명),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사망 6명, 부상 1명), 올해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사고까지 3년 연속으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다.

콘크리트(Concrete)는 1824년 영국의 벽돌 직공인 '조셉 아스프딘(Joeseph Aspdin)'이 석회석과 점토의 혼합물로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를 발명했는데, 1867년 철망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화분을 만든 프랑스 정원사 '조제프 모니에(Joseph Monier)'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 RC)의 발명은 바벨탑(Tower of Babe)에서 멈춰있던 인류의 높이를 향한 열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전까지 주요 건축재료는 벽돌과 콘크리트였다. 성격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은 돌과 진흙이었지만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바벨탑도 벽돌에 역청을 발라 올렸다. 콘크리트는 응회암 분말, 석회, 모래를 물에 섞는 방식으로 고대부터 사용됐다. 로마 판테온(Pantheon) 신전의 주(主)자재도 콘크리트다. 문제는 높이인데 건물이 높아질수록 벽돌은 무한대로 커져야 했고,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약해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압축력에 강

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에 강한 철근이 서로 약점을 보완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건축구조로 자리 잡았고 '더 높게'라는 인류의 열망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

철은 콘크리트와 팽창계수가 동일하므로 연교차(年較差) 등으로 수축·팽창이 발생해도 구조물의 외부(콘크리트)와 내부(철근)의 편차가 나질 않아 급격한 균열이나 급속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우연히도 거의 동일'하다는 속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산화에 약한 철을 알칼리성을 띤 콘크리트가 감싸줌으로써 철의 내구성도 높일 수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건물의 내구성과 장력(張力)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철근 콘크리트야말로 신이 건축가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주(主)자재인 철근을 누락시키거나 빼먹었다니 그저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더구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을 빼먹은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은 더 크다. 아파트 기둥 철근 누락 조사 결과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건설 감리'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도면엔 기둥과 슬래브 연결 지점에 '전단 보강근'을 늘리게 돼 있는데 아예 다 른 층에 배근한 것을 감리 업체가 잡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조차도 놓쳤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200억 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책임 감리제가 도입됐다. 선정된 민간 감리업체가 설계·원가·품질감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인데 무려 30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려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든다. 그런데 철근을 누락시키거나 빼먹은 것을 비롯해 각종 부실 시공이 난무하다. 이는 자칫 생명까지 위협한다. 전국에 걸쳐 총 25만 가구가 되는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순살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이권과 비리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주민 안전이 최우선인 해결책이 졸속에 그친다면 주거 불안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LH 91개 단지 조사가 석 달이나 걸린 것을 고려하면,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으로는 점검마저 졸속이 될 것이라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이번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만큼은 시한에 쫓김이 없이 철저히 부실과 위험을 파헤치고, 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를 면밀하고 철저히 실시할 것은 물론 보수·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감리 업체가 공사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감리 업무 처리방식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부실 공사라는 고질병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건설 카르텔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법정 최고의 엄중한 단죄와 추상같이 준엄한 대가를 치르는 혹독한 선례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실선기본법' 개정 등 관련 5대 법안의 입법 조치도 서둘러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칼럼

S모 변호사,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더 이상 논란을 야기하지 말라

필자는 중도보수주의자로 윤 대통령을 존경하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다.

오늘은 지금 언론에 나오는 S모변호사의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보면서 이견 아니기에 더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S모변호사가 말하는 글자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전멸한다. ▲이 모든 것이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등 기독교 세력의 윤정부에 대한 비토 때문이기에 이들 유승민과 이준석을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홍준표 시장 역시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난해 왔다"며 흥 시장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는 내년 총선을 기대할 수 없어 신당을 차릴 것이라는 참 위험천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총선까지 불과 몇 개월 남았다고 이런 실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녕 대통령의 조언역을 하는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 맞다면 결코 함부로 하는 말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일텐데, 어찌 이리도 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서 화가 치밀어 옴을 감출 수 없게 한다.

이에, 필자는 도대체 저런 실언으로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결코 유익하지 않은 실언을 늘어 놓는 분이 얼마나 정부여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를 들어나 봤다.

그런데, 이견 장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비토를 놓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나,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시 안철수씨가 당대표되던 윤대통령께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도를 넘는 어이상실의 실언을 해, 정치적인 셈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음을 느꼈 수 있었다.

필자가 바라 본, S모변호사의 말은 설득력이 낮아 법조계 인물로는 그 값어치를 인정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결코, 정부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앞뒤 안맞는 말로 이는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된 실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로 보인다.

어찌 대통령의 멘토란 분이 이리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지.....

한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허언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민을 기만하는S모변호사를 질타하고 있지 않은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지난 4일, S모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일축하며 김은혜 후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S모변호사와 국정·정치 문제에 대해 어떤 얘기도 나눈 바 없다"며 "국민들에게 논란을 야기하는 황당무계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S모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황당한 이야기라며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공직생활 때문에 공식라인을 제외한 사적 관계에서 공적인 문제 논의 자체를 금기시 한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에 필자는 왜 S모변호사가 앞뒤 맞지 않는 발언을 하게 됐을까?를 짚어

보면서 혹, 그가 존재감 부재에서 비롯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싫어하는 유승민, 이준석을 비난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 봤다.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다. 하나, 그는 심각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받고 있는 흥 시장을 대통령께서 내치려고 한다고 한다는 말을 흘린 점과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전멸을 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이대로는 안되는 까닭에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말을 늘어 놓은 점이다.

이는 정치적인 셈법이나 정치력, 정치의 흐름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아적 발상에서 기인된 지나치게 편협된 사고에 빠진 자가당착식 실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에 언급드린대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때 골프파동으로 나온 큰 근육을 치르고 있는 분인데다 저들 야당의 도에 넘치는 대통령 비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 이를 강하게 질타하는 윤 대통령의 방패막역을 토포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윤대통령께서 내치려고 한다는 영터리 궤변은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간 예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으며, 거기다가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이란 전무후무한 실언을 유포한 점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진배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S모 변호사가 마치 윤대통령의 뒤라도 되는냥, 혼란을 획책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킨 것이기에 이 지면을 통해 강력히 경고를 드림과 동시에 더는 외부에서 비취지는 대통령의 멘토라는 소리도 완전히 Off해줄길 강력히 주문드린다.

지금쯤 어렵고 중요한 시기이다. 한 사람의 우군이라도 더 만들어 가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어찌 이리도 앞뒤 분간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를 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누구인가? 명색이 보수의 아이콘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오로지 정의감으로 불타 있는 분이다. 그는 정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은 이 시대 최고의 천연기념물로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든든한 방패막을 하고 있는 분이다.

필자는 홍준표 시장만큼 보수우파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지켜온 사람은 이전 이후에도 결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한길 특심으로 정도를 걸어 온 분이다. 그는 국회의원 5선, 경남도지사 2선,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정치력, 지방정부 운영 능력, 탁월한 리더십등 완벽한 스펙을 다 갖춘 완전히 검증받은 이시대 최고의 정치인이다.

그만큼 당과 국가, 국민들에게 늘상 울바르고 곧은 소리를 해온 분은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모른다 고 감히 말하고 싶은 정도로 그는 확고한 사생관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그는 윤 대통령을 위해 소신있는 말로 직언을 아끼지 않음은 물론, 지금 저들 야당이 윤석열대통령께 퍼붓는 도에 넘치는 비난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야당을 꾸짖는대통령의 든든한 파수꾼역을 토포해 하고 있는 분일텐데, 어찌 돌팔매질을 하며, 윤 대통령께서 내치려고 하고 있다는 상식이하의 실언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불가하다.



문화매일 영남지사장 윤근수

하여, 더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이제 완전히 물러나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하기사 김은혜 후보수석의 말을 빌리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위치에 있지도 않은 분이기엔 뭐라 더 얘기할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필자는 S모변호사는 법조인 말고는 그 어떤 정치적 스펙도 없는 분이기엔 이제는 더이상 윤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함은 물론, 더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들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리지 않기를 주문드린다.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는 S모변호사의 말에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성명이 나왔다. 그런가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더는 혼란이 야기하지 않도록 바른 처신을 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힘과 정부는 분명히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열한 정치를 하는 자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등뒤에 비수를 꽂는 자들 즉 탈당하거나 신당을 차리려는 자들은 절단코 국민의힘에서 용서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자는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파수꾼 역을 하고 싶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 하려면 정도를 걸어야 한다.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게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자들은 즉시 대통령을 떠나라 하고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단코 사라지고 만다는 절박감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풀썩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일부 흐트러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근본이 우리 국민의 힘과 함께 하는 자라면 하나로 품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해야만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자칫 총선패배를 가져 온다면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는 영원히 회복불능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에 그 누구든 우리 국민의힘을 약화시키려는 세력, 내부 총질을 일삼는 세력, 우군을 적군으로 돌리려고 획책하는 세력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될 때,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란 지엄한 헌법적 가치가 보장된 대한민국땅에서 영원무궁 살아갈 수 있으리라.....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리셋으로 리프레시!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 이용자 협의회 출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증연구기반의 개방성과 활용성 증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4일 오후 2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이용자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극한소재란 초고온, 극저온, 특정 극한 환경을 구현하고 극한 환경에서 시험평가·시험생산 등 실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증연구기반의 공공 개방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단계부터 향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게 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가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자 협의회는 초고온, 극저온,

특정극한 분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부터 극한소재 실증 연구기반 장비의 구축 타당성, 운영 계획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소재 사용환경이 점점 극한화 되는 상황에서,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실증연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용자 협의회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 현장의 수요 발굴과 기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이름	소속처	분야
김대중	아이엠솔루션 대표	초고온
김정환	에이코퍼블리싱 대표이사	
유영환	두산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윤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정민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	
김기영	케이오텍 대표이사	극저온
홍원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민	KIST 에너지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정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극한환경
이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 올해 목표치 83.2% 상반기 조기 달성, 전년 동기보다 73억원 증가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으로, 전년 동기(1,700억 원)보다 73억 원 증가했다.

지난 6월에는 시·한국도로공사·경찰청 틀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여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목정보제공, 출금금지 및 같은 강력한 행정체제를 시행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2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으며, 시는 관세청과의 공동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 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으며, 시는 관세청과의 공동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교환도 협의 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제소 건수는 62건, 소가 3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은닉재산 관련 소송은 31건, 소가 6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확정된 26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서울시가 승소하는 경우는 20건이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 까지 평균 2~3년 소요되고, 입증에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 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 원 ▲서울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 원 ▲공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 원 ▲공공기목정보제공 25억 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금금지 2억 원 등이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일명 대포차) 영치 및 견인 등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에 서울 전역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총 683대 영치, 345대 영치예고, 17대를 견인한 바 있다.

최광수/기자

# 방위사업청, 신속한 무기체계 도입, 민간 아이디어로 이끈다

### 방위사업청, 민간 공모를 통해 신속시범사업 4개 선정

방위사업청은 '23년 2차 신속시범사업 추진위원회(8. 3.)'를 개최하여 신속시범사업 4개(신속시범획득사업 2개, 신속연구개발사업 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모두 민간기업에서 제안한 사항식 사업으로, 각 군과 협의하여 군사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으며,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군 환경에서 운용해봄으로써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격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23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 '24년 상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드론대용 다계층 복합방호체계'는 중요지역으로 침투하는 소형무인기(드론)를 소프트킬(제빙)과 하드킬(그물포획, 레이저)을 통해 무력화 하는 체계로서 드론 침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전술차량용 지능형 RCWS'는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탄도보정, 기동간 사격이 가능한 소형전술차량용 RCWS로서 차량내부에서 원격사격 수행이 가능

하여 전투원 생존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2개 사업은 '23년 하반기에 협약 체결, '25년 하반기에 군에 시범배치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추가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전투차량'은 전투부대의 통로 개척 및 기동로 확보를 위해 폭발물 탐지 로봇, 정찰드론 등 특수 임무장비를 탑재한 공병전투차량이며,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체계는 해병대의 상륙작전 수행시 해상 및 공중 이동이 가능하도록 소형화, 경량화한 자주박격포 체계로서 해병대의 상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한경호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시기술 및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한 장비를 도입하여 군 전력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속시범사업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AI 기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탄도보정, 기동 간 사격이 가능한 소형전술차량용 RCWS(원격사격통제체계 :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

# 특허청, '해군 함정 수중소음 감소' 아이디어 특허청장상 수상(김준형 학생)

### '제7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막식에서 시상식 개최

특허청은 8월 3일 10시 세트(SETEC) (서울시 강남구)에서 열리는 '제7회 국방과학기술대제전' 개막식에서 방위사업청과 함께 '문샷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방 난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군 함정 기동 시 수중소음 감소'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준형(성균관대) 씨와 장두희(한국원자력연구원) 씨가 각각 특허청장상과 방위사업청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청의 아이디어 거러 기반(플랫폼)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진행되었다. 군의 미래전장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 부문과 △산학연 부문으로 구분하여 아이디어를 모집하였다.

올해 5월부터 약 1달 동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8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선행기술조사 등을 거쳐 총 6건의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특허청장상에는 '해군함정의 프로펠러를 소음흡수재질로 제작하여 수중소음을 감소시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일반국민 부문 김준형(성균관대) 씨가, 방위사업청장상에는 '무소음/무진동 초전도 자기유체역학(MHD) 추진기관(엔진) 적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산학연 부문 장두희(한국원자력연구원) 씨가 선정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장상에는 서장현(부산기계공고) 씨, 국방과학연구소장상에는 김성수(㈜아디아랩) 씨, 서동욱(한국해양대학교) 씨, 이순호(㈜필드지) 씨가 각각 선정

되었다.

이인식 특허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 소통창구인 '아이디어로'를 통해 최초로 국방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문	상위	제안자(소속)	과제명	제안자명
일반 국민	특수장비	김준형 (성균관대)	해군함정 프로펠러 소음흡수재질로 제작하여 수중소음을 감소	김준형
	방위사업청	장두희 (한국원자력연구원)	무소음/무진동 초전도 자기유체역학(MHD) 추진기관(엔진) 적용 아이디어	장두희
산학연	국립과학연구소	서장현 (부산기계공고)	국립과학연구소장상	서장현
	국립과학연구소	김성수 (아디아랩)	국립과학연구소장상	김성수

# 영양 들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 산림청, 자생식물 산업화의 첫걸음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 발간'

국립산림종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집필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를 발간했다.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에 대한 자생지별 세부 특성을 수치화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총정리했으며, 기존의 도감이나 보고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식물의 부위별 현미경 사진과 화분 형태, DNA 염기서열 정보 등을 수록하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수록된 산림식물로는 단풍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자기'를 비롯하여 연보라색 꽃이 아름다운 '둥', 향기가 좋아 열매가 증류주의 원료로 쓰이는 '노간주나무' 등 총 16종의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들이 포함됐다.

발간된 책자는 자생식물 연구자, 산림종

육종가, 관련 산업계 종사자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종종관리센터장은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 자료집은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주권 확립과 산업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매년 센터에서 발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산림자원식물 산업화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산림종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집필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 연구(12)'를 발간했다.

영양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와 남이도, 심의계곡, 수회계곡, 본신계곡, 참벽골,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읍성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박물관보존관, 반딧불이전주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장, 일월산자연휴게림, 영랑풍력발전지, 국립산림자연휴양림, 영랑산생태휴게림, 분재수석이생화전시장

#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

8.24.(목)~9.8.(금) 원서 접수 업무처리 안내

이상진 중등교육과장, "설명회가 도내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초석 되길 기대해"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수능 원서접수 담당교사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업무처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개요 설명 ▲원서접수 업무처리 지침 안내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원서접수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4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며 평일 09:00~17:00 사이에 진행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와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현재 주소지 소재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도내 8개 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와 응시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수능의 첫 번째 단계인 원서접수 업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설명회가 도내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안동학교지원센터,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응급상황시 생명을 구하는 위기 대응 능력 신장

윤석근 센터장, "학교지원센터는 교직원들 교육활동 지원에 지속 노력하겠다"

안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3일(목), 학교교육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급학교 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자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 지원과 아울러 응급상황시 생명을 구하는 위기 대응 능력 신장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안동소방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처치의 필요성 및 주의사항 등의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운용 방법 등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윤석근 학교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교 교직원 모두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학교지원센터는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교육 현장 중대재해 예방 확고히 다진다!

도내 전 학교 및 기관 대상 안전보건확보 이행사항 점검

박동필 교육안전과장, "지속적 점검과 컨설팅으로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모든 공립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긴급 상황 발생 시 체계적 대응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학교와 기관은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

방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박동필 교육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으로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확고히 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기본방향' 전 기관 제작·배포, 학교 현장 의견 수렴회 개최, 담당자 직무 연수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윤근수/기자

# 부산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교육 현안 간담회 개최

4일 오후 부산교육 주요 정책 현안 논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과 '교육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최인호·전재수 국회의원, 임성수 부산시당 사무처장,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아침 체인지 활동 ▲통학로 안전 대책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 등 그동안 추진해온 부산교육 정책과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 근거 마련, 지난 8년간 미인가 상태였던 탈북민대안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정식 대안학

교 승인, 법무부와 협약을 통한 요원정보 산업학교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등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을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정책 설명 후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 등 부산교육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 영덕교육지원청, 여름방학 진로특강 실시

박재식 교육장,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맞춤형 대입 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영덕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3일(목), '2023 슬기로운 고교생활' 진로특강을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 진로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진로 진학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진로 진학 선택 방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다.

이날 특강은 진로 진학 전문가인 도규태 강사를 초청해, 관내 학부모(1

부), 고등학교생(2부)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2025 대학 입시 전략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등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 질문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현장 질문이 이어지는 등 강의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영덕교육지원청 박재식 교육장은 "이번 행사로 지역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 진학 설계 및 안정적인 고교생

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맞춤형 대입 지원 정보 제공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문화/기자



##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방규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 용인특례시, 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활동에 시의 행정인력 지원키로

## 에버랜드 등 밀집지역 4곳에 2명씩 모두 8명이 경찰과 함께 특별방범활동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 걸어 경찰의 특별활동 지원 뜻 밝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문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방범활동에 시의 행정인력을 투입하는 등 시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가 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곳은 에버랜드와 주요 지하철역(기흥역, 죽전역, 성북역) 등 다중밀집지역 4곳이다.

시는 본청 행정과와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 자치행정과로 이뤄진 4개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6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4개반 2명씩 모두 8명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에버랜드에 40명, 기흥역에 50명, 죽전역에 20명, 성북역에 70명, 기타 지역에 214명 등 모두 394명을 배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 상에 뜨자 현장을 찾아 경찰의 치안활동을 점검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용인특례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시의 인력 지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 시장은 홍 청장과의 통화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문지마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매우 커진 만큼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대응활동에 용인특례시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활동에 협조해 준다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에서 인력지원까지 해주기로 한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일 삼가동 용인경찰청(주) 사무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운영(주)과 합동회의를 열어 경전철 역사 내에서 근무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조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

이마트, 기흥 AK프라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내 대형마트, 아울렛 등과도 안전을 위한 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이나 시에 연락하도록 하고, 자체 보안인력도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용인시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단체에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에서 수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시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범상/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 폭염 대응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 폭염 대응 예방 대책 적극 추진

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관내 무더위 쉼터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 쉼터 내 에어컨 등 냉방기 가동 상황과 이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연일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군민의 건강이 우려되니 무더운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는 다양한 폭염 대응 예방 대책을 마련해 군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거창군은 현재 무더위 쉼터 314개소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주2~3회 가정방문과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438개소 경로당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병철/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휴가철 축제장 및 무더위 쉼터 안전점검 점검 실시

## 김명선 행정부지사, 홍천강 별빛음악축제장, 폭염 무더위 쉼터 점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8월 4일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내 홍천강 별빛음악축제 주요시설을 점검하고, 홍천군 무더위 쉼터 2개소를 방문, 현장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천군에서는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천강별빛음악축제(8.2.~8.6)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심의하고, 전기, 가스,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 축제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축제를 주관하는 홍천군은 연이은 폭염에 대비하여 축제장 내 무더위 쉼터 2개소 운영과 더불어 대형선풍기 30

대, 아이스박스 17개를 축제장 주변에 배치하여 폭염대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폭염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7월 31일부터 선포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축제장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전망으로 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동원/기자



# 경남소방본부, 폭폭 찌는 한낮 더위, 12~15시 야외활동 자제

##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피해 최소화 당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장마 이후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발효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경상남도 119구급출동 건수는 64건으로 5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작년 동기 대비 출동 건수는 2건(3%) 감소했으나, 온열로 인한 사망자(4명)와 열사병(16명)은 2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51~60세 75명(19.6%), 81세 이상 73명(19.1%)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장소별로는 바다/강/산/논밭 139명(36.4%), 시간대별로는 12~15시 131명(34.3%)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대별로 61세 이상 210명(55.9%)으로 낮(12~15시) 시간대 논밭에서 작업 중인 고령층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은 충분한 수분섭취, 한낮 야외활동 자제, 자외선 차

단제 사용, 외출 시 모자-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 폭염 예보 시 주변 노인분들의 안부 확인 등이다.

소방본부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은 "올 여름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어느 때보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과 실태 점검 등을 통해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내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2**

**폭염 시 행동요령**

<p><b>첫번째</b></p> <p>TV, 인터넷, 라디오 등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p>	<p><b>두번째</b></p> <p>술이나 카페인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셔요</p>
<p><b>세번째</b></p> <p>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직업을 자제해주세요</p>	<p><b>네번째</b></p> <p>냉방기기 사용시 실내외 온도차를 5°C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p>

##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gun #육지안의섬 #뽕봉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g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문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g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g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 영화 '잠'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섹션 공식 초청! 세계 우수 영화제 잇따라 입성!

# '순정복서' 김진우가 밝힌 대표 키워드 3가지! "청춘-사랑-성장"

2023년 가장 유니크한 공포 '잠'이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섹션(Midnight Madness)에 공식 초청됐다.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 제작: 루이스픽처스 | 각본/감독: 유재선 | 출연: 정유미, 이선균]

특히, '잠'은 올해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를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0월 개최를 앞둔 제56회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메인 경쟁 섹션(Official Fantastic In-Competition)에 초청되어 스페인 프리미어 상영 또한 앞두고 있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오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영화제다.

미드나잇 매드니스 섹션(Midnight Madness)은 강렬한 컨셉과 감각적인

비주얼 등 독보적인 감각의 장르 영화들을 조명하는 섹션으로 '잠'이 선보일 차별화된 공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미드나잇 매드니스 프로그래머 피터 쿠플로스키(Peter Kuplowsky)는 "'잠'의 올해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프리미어는 경사스러운 시작을 알렸다.

각본가이자 감독인 유재선은 서스펜스와 재치, 그리고 강력한 모호함을 통해 능숙하게 장르를 전복했고, 나는 그를 기쁘게 미드나잇 매드니스에 초청하게 됐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공포'라는 독특한 설정을 이제껏 본 적 없는 유니크한 방식으로 그려내며 올가을 최고의 기대작으로 부상, 전 세계 우수 영화제부터 쏟아지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잠'을 향한 관객들의 기대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와 수진을 악몽

처럼 덮친 남편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애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잠'은 9월 6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배우 김진우가 '순정복서'를 통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순정복서'(극본 김민주 / 연출 최상열, 홍은미 / 제작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코너스톤, 블레이드ENT)는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제2회 수상작인 추중남 작가의 소설 '순정복서'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사라진 천재 복서 이권숙과 냉혈한 에이전트 김태영의 인생을 건 승부조작 탈출기다.

김진우는 타고난 말발과 모두를 사로잡게 만드는 훈훈한 얼굴로 엄마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낙하산 부원장 한재민으로 변신한다.

그는 '순정복서'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이 궁금해지는 이야기와 각각의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한재민 또한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재민이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우는 자신이 맡은 한재민 역에 대해 "상대에게 결을 주는 듯하면서도 다정한 듯하면서도 차가운 친구다. 양극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재민의 매력"이라고 꼽았다.

캐릭터를 연기하며 모든 순간이 설레

고, 기대됐었던 김진우는 "대본을 읽으면서 재민이의 숨겨진 서사를 상상하기도 했다.

특히 재민이가 권속을 대할 때 연애 경험은 많지만, 사랑의 감정에는 서툰 모습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했다"며 캐릭터 설정 과정을 설명했다.

'순정복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세 가지로 '청춘', '사랑', '성장'을 꼽은 김진우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살아 숨 쉬는 점이 작품의 매력"이라며 "긴 호흡의 연기로는 처음 인사드리다 보니 재민의 초반, 중반, 후반 분위기가 감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실 텐데 그런 재민이의 변화를 기대하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는 "감독님, 선배님, 스태프분들과 행복하게 촬영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등장인물 각각이 지닌 사연에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이다"며 예비 시청자를 위한 관련 포인

트도 잊지 않았다.

얼굴 전체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훅' 사로잡을 김진우만의 다채로운 연기는 오는 21일(월) 밤 9시 45분 첫 방송 되는 '순정복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김희정, 장혜진-김형묵과 꽃중년 삼각관계 열연 '눈길'



배우 김희정이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에서 무게감 있는 연기력으로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했다.

김희정은 매주 수, 목 저녁 9시에 방송되는 ENA 수목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연출 한철수, 김용민 / 극본 권민수 / 기획 KT스튜디오지니 / 제작 삼화네트웍스)에서 내공 깊은 극강의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의 중심을 다잡았다.

극 중 김희정이 맡은 역할 피장미는 '검사 미용실'의 원장이자 고영주(김지은)의 어머니이다.

홀로 딸을 키우며 안 해본 일없이 살던 억척스러운 인물로 검사인 딸 영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또한 닥터추(김형묵)와 황혼 로맨스까지 꿈꾸고 있어 진실

다. 지난 1회에서 장미는 닥터추를 차지하고자 홍영희(장혜진 분)와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장미는 구치소에서 훈방 조치돼 밥을 먹고 있던 영희에게 두부를 건네며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고 영희는 이에 지지 않고 자극적인 말들로 맞섰다.

결국 장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영희의 입을 먼저 움켜쥐었고 이내 닥터추가 등장하자 곧장 싸움을 멈춘 장미는 조심해진 태도로 "언니랑 오해가 있어서"라며 상황을 무마했다.

김희정은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전했다.

3회에서 장미는 미용실에 방문한 영희가 닥터추와의 데이트를 걸고 열치통 따기 내기를 걸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대결 도중 영희가 반칙하자 "진짜 나잇살 먹고 창피하게 가지가지 한다.

치사하게 못 보겠네"라고 뽕뽕을 날리면서도 닥터추에게는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내가 압승인데 그거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장면에서 김희정은 표정 연기는 물론 사투리가 포함된 대사 톤마저 장미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내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게다가 닥터추, 영희와 함께 노래방에 간 장미는 닥터추에게 치근덕대지 말자는 조건으로 영희에게 노래방 점수 내기를 제안했다. 그 결과 장미가 승리했고 닥터추는 장미에게 삼세판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장미는 "하나 마나 한 게임인데, 그러지 뭐"라며 여유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김희정은 자신만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캐릭터의 특징을 디테일하게 담아내며 극 매력을 배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4회에서는 장미가 남편으로부터 가장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안방극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장미는 급기야 남편이 영주를 때리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김희정은 딸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장미를 완벽히 구현해냈고 그녀의 세심하고 정교한 연기력은 빛을 발했다.

이렇듯 김희정은 매회 인물의 회로애락을 담은 명품 감정 연기로 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끌었다. 특유의 표정, 몸짓, 말투는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고 적재적소에 맞는 내공 깊은 연기력은 대체 불가 존재감을 알렸다.

김희정의 열연이 담긴 ENA 수목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는 매주 수, 목요일 저녁 9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2023. 8. 8. (화) ~ 8. 11. (금)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울릉군

제4회

# 섬의 날

in 울릉도

### 금천구, '세대공감반려동물 진로탐색 프로젝트' 운영

자원봉사 통해 홀몸 어르신에게는 고독감 해소, 청소년에게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금천구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세대공감 반려동물 진로탐색 프로젝트'다.

'세대공감 반려동물 진로탐색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홀몸 어르신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과 놀이감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고, 반려동물 관련 진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됐다.

청소년 10명과 지역 홀몸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7.26.) ▲반려동물 놀이감 만들기(7.31.) ▲어르신과 반려동물 짝꿍 사진찍기(8.7.-8.11.) 할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사업 분야를 알아보는 진로 교육도 받았다. 수의사 진로 체험을 하고,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쭈쭈 케어센터'를 방문해 반려동물과 관련 있는 다양한 직업, 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어르신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홀몸 어르신에게는 반려동물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관악구에서 즐기는 여름방학, 신림선 타고 떠나는 신나는 여름여행 GoGo!

신림선 '신림역'부터 '관악산역'까지 곳곳에서 즐기는 여름

관악구 곳곳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경전철 신림선을 타고 가족들과 함께 교통체증 걱정없이 떠날 수 있는 즐거운 여행지가 있다.

먼저, 신림역에서 내리면 관전로 문화플랫폼 S1472, 별빛내린천 물놀이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가 있다.

'관전로 문화플랫폼 S1472(신림역)'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 예술인, 단체가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관전로 문화플랫폼 S1472의 방문객 수는 올해 7월 기준 1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1년간 방문객 수 1만 5천여 명에 육박할 만큼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8월에는 공연예술 분야인 ▲슈프림의 '기타로 듣는 트로트'(8월 4일 18시부터 20시까지) ▲만월프로젝트의 '스토리 오브 더 춘향'(8월 19일 17시부터 18시까지)와 시각예술 분야인 ▲서영철의 '풍경 배움'(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정은의 '나만의 소우주'(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등이 개최된다.

전시, 공연을 관람한 후 별빛내린천을 따라 걸다 보면 지난 7월에 개장한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다. 이곳에는 우산분수, 아치위터, 버킷 4종, 소형 샤워 등 색다른 물놀이 시설이 있어 어린이들이 물줄기를 맞으며 시원하게 뛰어놀 수 있다.

이용 대상은 9세 이하 어린이이고, 운영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아이와 함께 자연을 즐기고 싶은 주민들은 신림선 관악산역에서 관악산 계곡 캠핑숲, 관악산 모험숲 어드벤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이곳에 위치한 '관악산 계곡 캠핑숲'은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로 8월 19일까지 운영한다. 캠핑숲 인근에는 관악산 계곡 물놀이장, 어린이 모험시설과 공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신청한 가족 대상으로 5인용 텐트와 매트 등을 대여해 주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온수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1박 2일로 캠핑을 즐기려 하는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관악산 모험 숲 어드벤처'는 도시 숲속의 산리 스포츠 시설로,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나무 사이를 다니는 짜릿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이용객 979명 중 64.5%인 632명이 어린이일 만큼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용대상은 신장 140cm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일 총 3회(▲1회차 10:20~11:40 ▲2회차 13:20~14:40 ▲3회차 15:10~16:30) 진행되며, 회차당 최대 참여인원은 25명이다.

구는 8월 25일까지 '유아숲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내 유아숲체험원 7개소(청룡산, 대학동, 인현동, 낙성대, 삼성동, 선유공원, 당곡)에서 ▲계곡 물놀이를 통한 자원순환 원리 알기 ▲나침반과 지도를 보며 숲길 탐험하기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관악구에서 폭염 속 무더위를 이겨내고 가족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 발굴과 공간을 조성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지구를 지키는 패셔니스타는 누구? 광진구, 시원차림 패션왕 선발대회 개최

온라인 투표 통해 3명 선발, 제20회 에너지의 날인 22일 결과 공개

광진구가 일상 속 냉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1회 시원차림 패션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한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냉방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구는,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시원차림 패션왕 선발대회'를 준비했다. 이는 시원한 옷차림을 선보이는 패션대회로, 가벼운 복장을 착용하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가 담겼다. 실제로 옷을 시원하게 입으면 체감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참여방법은 시원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광진구 누리집에 올리면 된다. 민소매, 짧은 하의, 통 넓은 바지 등 복장 제한은 없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여러 장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정적인 사진은 제외된다.

대회는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대회 막바지인 16~18일은 시원차림 복장을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한다. 군자역, 건대입구역, 광진구청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청량감이 느껴지는 시원한 배경에서 마음껏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3명의 패션왕을 선발하고, 후보자 중 22명을 추첨해 에코백, 고체 치약 등 친환경 제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공개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통해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패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시원한 기분을 느끼고 환경도 보호하는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강남구, 별별놀이터 개최...아이들 "신나다! 여름축제!"

8월 4일~5일 세곡동 율현공원에서 개최, 야외잔디밭에 펼쳐진 대형 놀이터와 풀장에서 시원하게 즐기는 영화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4일 세곡동 율현공원 잔디마당에서 여름 테마파크형 축제 '2023 별별놀이터'를 개최했다.

'별별 즐거움이 뿜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별별클래스, 별별피크닉, 별별놀이터, 별별스테이지 총 4개의 테마로 이뤄진다. 볼풀을 가득 채운 대형 에어풀장, 키즈라이더, 물총 게임, 축구빙고, 화이트 버블 파티 등을 즐길 수 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별별스테이지에서는 뮤직콘서트와 풀장 영화제가

열린다. 도심 잔디밭에 마련된 미니풀장에 야외 시원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풀장 영화제는 이 축제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는 내일 5일까지 이어지며 이용 시간은 11시부터 21시까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별별놀이터에서 어린이와 가족 모두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 개최한 여름 축제가 앞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로 밝혔다.

정동희/기자

### '서초가족 에코캠프'로 여름방학 생태교육 떠나요!

초·중학생 41명과 동반가족 등 총 108명 참가...환경보전 문화 확산

서울 서초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5일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청계산 원터골(원지동 산4-38)에서 체험형 환경교육 '서초가족 에코캠프'를 개최한다.

'서초가족 에코캠프'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자연친화적 생태체험을 통해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환경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달 21일부터 8일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초·중학생 41명과 동반가족 등 총 108명이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동·식물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새집 꾸미기 및 달기 ▲희망메세지 달기 ▲생태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참여가족은 토끼풀조, 도토리조, 참나무조로 나누어 자격증이 있는 숲 해설사

와 함께 생태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쌍안경, 루배(확대경) 등의 관찰도구를 사용해 청계산 내 야생 동·식물들을 관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새집 꾸미기 및 달기' 행사는 구멍이 뚫린 인공새집을 예쁘게 꾸며서 청계산 숲 나무 곳곳에 매다는 체험이다. 새집은 청계산에 사는 박새, 곤줄박이 등 새들에게 쉼터와 번식터로 이용될 예정이다. 설치된 새집에 새들이 잘 정착하는지 관찰해 보며 청소년들이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또 자연을 되찾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무 판에 적어 나무에 달아주는 '희망메세지 달기' 행사도 연다.

이외에도 '생태골든벨'은 학생들이 환경 퀴즈를 풀며, 소중한 자연 친구들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기후 학교'를 통해 지역내 15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삼형제' 환경연극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초·중·고교생 238명으로 구성된 '서초 탄소제로지킴이'는 지난 4월 위촉장을 받고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그린리더로 활동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며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청정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2022 우수축산물브랜드' 선정

# 봉화 한약우

익호연조자르 명품한우

봉화 한약우는 우수혈통으로 선별한 한우에 자연의 기를 머금은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사육한 명품 한우고기입니다. 한우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함께 각종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참살이 건강식품으로, 청정지역 봉화군에서 무항균, 무항생제, 무농약의 생산조건으로 품질인증 받은 국내 고급브랜드 한우입니다.

봉화 한약우 프라자

봉화군

권력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체 ▶ 중요사안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안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 원활한 인력수급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인재양성** |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  
|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  
| 삼성전자 - 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우수인력**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단, 제2국가산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항만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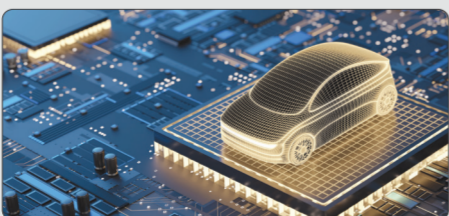
###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 SKT컨소시엄 협업 UAM 기반 구축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 기업이 몰려드는 자율주행산업 허브 구축



### 반도체

- 첨단센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조성
- D-FAB 센서 파운드리 구축
-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DGIST 센소리움연구소 설립·운영)



### 로봇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서비스로봇 실증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전주기 (데이터수집·중개, 개발·실증, 판로개척) 지원
- 의료산업 사업화(판로개척) 중점 지원
- 디지털 치과클러스터 구축 및 디지털치료제 육성



###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 ABB성장펀드 운영

